

선포와 봉사

2024년 나-3(통권 제154권)

주님수난성지주일~성령강림대축일
2024.03.24.~2024.05.19.

빛두레

‘기쁨과희망’ 기도문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오늘날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는
바로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기심의 어둠에 갇혀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이웃을 외면한 채 탐욕 속에서
당신의 보살핌을 저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되이 간청하오니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슬픔과 걱정을 헤아리시어
이들의 의로운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시오.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의 어려움과 번민을
신앙으로 통찰하고 사랑으로 함께 나누며
희망을 지니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여주소시오.

자애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과 역사 안에 담겨진 진실을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충실히 견도록 도와주소시오.

이웃의 삶과 감추어진 진리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헤아리며 따르게 하소서
혈벗고 굶주린 이, 나그네와 이방인,
사회적 정치적 결손으로 상처받은 이들이
기쁨과 희망,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열린 세상이 되게 하여주소시오.

현실과 역사의 현장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이웃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항상 회개하며 쇄신하는
창조적 민족공동체가 되게 하여주소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순교자들과 선열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사목현장Gaudium et Spes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1994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 사제단 창립 20주년을 계기로 연구원 설립을 논의 하고, 1995년 8월 7일에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를 열고, 그해 12월 18일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1996년 6월 17일 창립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현장의 삶과 체험을 후학들에게 전승 하기 위해 자료 정리와 문헌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적 교회공동체를 꿈꾸는 모든 사람과 함께 현실 비판 그리고 대화와 연구를 통해, 그 사목적 대안을 마련하여 교회 쇄신과 참교육에 이바지하려 합니다. 나아가 평화로운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특히 민족과 신앙을 주제로 한국교회의 새로운 비상을 도모하여 모든 이와 대화하는 종교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구성원

이 사 장 : 송기인

이 사 : 안충석 양 홍 황상근 호인수 이영우 김홍진
문규현 전종훈 맹제영 김영식 이강서 김인국

감 사 : 나승구 최성호(회계사)

운영위원 : 이강서 이영우 맹제영 김정욱 강현우 한창현
한경호 김하나(수녀)

기획위원 : 박동호 맹제영 나승구 정수용 황인수
조진선(수녀) 정현진(기자)

원 장 : 함세웅

■ 필 자

김영수 전주교구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 관장

박동호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기획위원장

송창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나인구 의정부교구 관산동본당 주임신부

정남진 원주교구 용소막본당 주임신부

최상훈 서울교구 등촌3동 부주임신부

최승정 서울교구 사제평생교육원 연구위원

최정훈 가톨릭대학교 교수(성신교정)

함세웅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원장

*일러두기

성서 인용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나온 <성경>을 중심으로 하
되, 필자의 집필 의도에 따라 <공동번역 성서>도 인용하였습니다.



차 례

3.1혁명 105주년 원로 구국선언	함세웅	6
03.24 주님수난성지주일	최상훈	11
03.31 주님부활대축일(낮미사)	최승정	31
04.07 부활 제2주일(하느님의 자비주일)	함세웅	53
04.14 부활 제3주일	정남진	73
04.21 부활 제4주일(성소주일)	김영수	83
04.28 부활 제5주일	송창현	97
05.05 부활 제6주일(생명주일)	박동호	111
05.12 주님승천대축일	나인구	117
05.19 성령강림대축일	최정훈	127

찬미예수님

3월 성요셉성월 막바지에 요셉 성인을 기리며 모든 아버지, 가장들의 노고를 기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신부님들과 수도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회원과 독자 교우들께 부활절 인사와 함께 평화의 축복 인사를 드립니다.

4월 10일은 국회의원 총선거일입니다. 부활 제2주일 4월 7일자 강론(이 책 53-71쪽)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이번 선거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입니다.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민족의 운명이 판가름 날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온통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대해 분노하는 이들은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식으로 정치 혐오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고 무책임한 말입니다. 신앙인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정치 현실과 선거에 진지한 자세와 봉헌기도의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이에 참고 자료로 지난 3.1독립선언일에 발표한 원로들의 호소를 첨부해 전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아름다운 민족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고심하고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하느님 도와주소서. 이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024년 3월 7일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가족들과 함께

함세웅 아우구스티노

-3.1혁명 105주년 원로 구국선언-

민주진영 총선승리로 무도한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

야권은 지역구 후보단일화로 국힘당을 물리치자!

일제의 무단통치와 착취에 분연히 거족적으로 떨쳐 일어난 3.1혁명 105주년을 맞았다. 우리는 4월 혁명 이래 최근의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쉽 없는 민주대장정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 민주국가로 성장하여 3.1혁명이 선포했던 민주공화국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탄압에 부딪혀 우리의 민주주의는 다시 위기에 빠졌다. 또한 3.1혁명의 찬란한 역사가 무색하게도 일제 지배를 옹호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다시 군림하고 있다.

“100년도 더 지난 일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하라는 건 인정할 수 없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 더 이상 사죄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한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과거 자유당 독재정권, 군사독재정권에서도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일본에 가혹한 수탈을 당하고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한 강제징용자에 대해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제3자 변제’라는 해괴한 방식으로 우리 기업이 대신 물어주라고 하였다. 독립투사의 흉상을 육사교정에서 몰아내려고 한다.

과거를 팔아먹는 자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도 팔아먹는다.

이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를 옹호해 주고, 이제 독도

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 자위대의 군홃발이 우리 강토를 짓밟게 하려 한다.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친일행각은 숭미 저자세와 맞물리면서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미-일-한 군사동맹을 추진하여 중-러-북의 대응동맹을 자극, 한반도평화에 위기를 초래하고 국제적 진영대결을 촉진했다.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지난 50여 년 동안 축적해왔던 한반도평화 기초를 허물었다. 박정희 정권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권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권의 6.15 평화공존 선언, 노무현 정권의 남북경제교류 선언, 문재인 정권의 평화안정-군사충돌예방 합의 등을 무효화해 버렸다. 윤석열 정권이 선제타격론, 국지전 전면전 불사론을 내세우자 한반도에서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세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정권도 윤석열 정권의 흡수통일론, 무력통일론의 위협 때문인지 ‘남북분단 기정사실화’로 기울었다.

대일 대미 굴종과 전쟁위기를 부르는 윤석열 정권은 민생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부자감세, 중대재해법의 무시, 노동조합에 대한 분열과 조직파괴, 야당에 대한 탄압과 분열공작, 윤석열 일가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원성 무시, 특히 언론자유에 대한 무제한 탄압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

나라를 망가뜨리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 10일에 실시된다. 윤석열 정권은 마땅히 이번 총선에서 심판되어야 한다.

나라를 막장으로 몰아넣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조속히 중

식하기 위한 야권의 반윤연합 전선은 튼튼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각 당의 공천 과정이 곧 완료될 것이다. 우리는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 수준에서 지역구 야권후보 단일화를 추진하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여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이것이 거족적으로 일제의 탄압에 맞서 일어섰던 3.1혁명의 대의에 맞는 사명이며 그 105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주독립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과업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하나로 뭉쳐 무도한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별로 야권후보 단일화 운동에 나서자!

3.1혁명 105주년 2024년 3월 1일

강정채 구중서 김상근 김정현 김중배 명진 문정현 박석무 박중기
박찬석 배다지 신낙균 신인령 신흥범 안재웅 안충석 양홍 윤정모
이부영 이해동 임재경 임현영 장임원 함세웅 현기영 황석영

주님수난성지주일

제1독서 [이사 50,4-7]

⁴주 하느님께서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⁵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⁶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⁷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교회는 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성주간을 ‘주님의 종’의 노래와 함께 걸어가도록 안내합니다. 첫째 노래(이사 42,1-7)는 성주간 월요일, 둘째 노래(이사 49,1-6)는 성주간 화요일, 셋째 노래(이사 49,4-9)는 수요일, 넷째 노래는 성주간 금요일(이사 52,13-53,12)에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노래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래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선택하여 당신 영을 주신 종을 장

엄하게 소개합니다. 이 종은 주님에게서 전권을 받아, 지치지 않고 ‘공정’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려야 합니다.

둘째 노래는 이 종이 화자가 되어, 자신이 받은 하느님의 선택과 소명에 대해 노래합니다. 비록 모태에서부터 이 소명은 시작되었지만, ‘쓸데없이 고생만 한’ 것 같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확신을 잃지 않은 그를 주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물론, 주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펼치는 ‘빛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셋째 노래에서 이 종은 이러한 과정에서 겪을 모욕과 주님의 격려에 대해 노래합니다. 두 번째 노래에서 언급한 바 있던 어려움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만, 그는 주님의 위로와 함께 이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맞설 것임을 다짐하면서, 네 번째 노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장 긴 마지막 노래는 이 종에 대한 하느님과 인간의 보고가 함께 담기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노래의 시작과 끝(이사 52.13-15: 53.11-12)에서, 이 종이 거둔 ‘성공’을 격려합니다. 그는 많은 이의 ‘죄악’을 짊어지는 고난 끝에 사람 같지 않게 망가졌으나, 이 대속적인 업적을 통해 세상을 놀라게 했고, 그로 말미암아 제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었음을 알고 이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지주일에는 그중에서 셋째 노래를 일부 구절(8-9절)을 제외한 채, 필리피서의 그리스도 찬가(필리 2.6-11)와 함께 매년 듣게 됩니다. 미사를 시작하며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 때의 복음과 본 복음독서로서 수난기를 전례력에 따라 마태오-마르코(나해에는 행렬 전, 요한 복음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루카 복음에서 선택하여 봉독하는데 반해

서, 1독서와 2독서를 이처럼 고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날의 전례는 성주간을 시작하는 교회를 ‘아버지 하느님께 순명하시며, 온전히 수난을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에게로 안내합니다.

[4절] 이 노래는 ‘주 하느님’으로 시작합니다. 화자는 ‘주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주 하느님’이라는 표현(4절, 5절, 7절, 9절)은 이사야서에서 낯설지는 않지만, 짧은 단락 안에서의 이러한 반복은 화자가 가진 주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즉 ‘나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드러낸다고 하겠습니다.

이 셋째 노래의 특징 중 하나는 정작 ‘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자신을 특징짓는 단어로 화자는 ‘제자 limmūd’를 2번 사용합니다(이 단어는 구약성서에서 드물게 사용되는데, 이사 8,16에서 같은 의미의 사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제자들 앞에서 이 가르침을 봉인하리라”). 스승으로부터 배우고자 하고, 또 스승을 신뢰하는 것이 ‘제자’의 특징이라 할 때, 이 특징은 이 화자의 자세와 부합합니다.

‘제자의 혀’는 배운 바를 충실히 반복하며, 스승이 가르친 바를 따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그 자체로 ‘주님의 종’이 가진 예언적 소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소명은 바로 ‘지친 이를 말로써 격려/지탱’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다’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여기에서만 드러나기에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고, 70인역에서는 이를 ‘응답하다’로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역합니다. “나로 하여금 지친 이에게 (친절히) 응답하는 법을 알게 하신다.” 하지만, 쿰란의 문서와 불가타 등의 다른 증거로

‘격려하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 구절 후반부의 첫 문장은 다소 어색합니다. ‘깨우다’ 동사가 ‘아침마다’ 앞뒤에 놓여 있습니다. 마소라 본문의 문장 구분과 악센트를 보면, 앞에 놓인 동사는 문장의 앞부분과 함께 놓여 있습니다. 70인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침마다’ 표현을 둘로 나누어, 각각 앞뒤의 동사와 함께 읽습니다. “그는 나에게 아침에 (이것을) 명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더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 번역이 선택하고 있는 것처럼, 후반부의 시작으로 이 동사와 ‘아침마다’를 함께 읽고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그다음 반복되는 동사를 이어지는 부분과 함께 읽는 것이 히브리어 본문을 존중하는 자연스러운 독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지만, 의미는 분명합니다. 말하는 자로서의 소명에서 들어야 하는 이의 자세로 전환합니다. 화자가 이제 증언해야 할 것은, ‘매일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며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이 화자는 ‘배우는 자’로서 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느님의 진리가 귀를 통해 마음에 전달되고, 그 과정에서 참 제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5절] 이 구절의 시작은 앞절 내용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주어’의 명시적 반복과 새로운 동사의 사용은 이것이 서기관의 실수로 빚은 반복이 아니라,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선택임을 알게 합니다(‘귀를 일깨우다’는 표현은 앞선 구절이 유일한 데 반해서, 귀를 열다’는 표현은 앞서 이사 35,5; 48,8에서도 사용된 바 있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뜻을 배운 화자는 그 힘으로 이제 ‘거역하지 않고’ 순명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되기를 바라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사명이 회피를 불러일으킬 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피하지 않습니다.

주어 ‘나’로 시작하는 이 구절의 후반부에 있는 두 동사의 내용과 시제(완료형)를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가 받은 어려움과 곧이어 이를 이겨낸 결단력이 묘사된다는 점에서, 5절 후반부는 화자의 ‘결심’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6절] 화자는 다가온 고난과 직면합니다. 채찍질에 등을, 고문에 뺨을 내맡깁니다(직역: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욕과 수모로부터 얼굴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모습은 이제 수난을 겪을 예수님의 운명을 미리 드러내고 있습니다(마태 27,26-30; 마르 15,15-20; 요한 19,1-3).

[7절] 이 구절은 접속사와 주어로 시작하면서, 앞 구절과의 단절을 만들어 냅니다. 고초를 겪었지만, 바로 그 순간 주 하느님께서서는 이 화자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도우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마음을 단단히 하고, 앞으로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독서에서 생략된 8-9절에서는 ‘주님의 가까이 계심’(8절)과 ‘도와주심’(9절) 안에서 모욕을 주는 이들과 맞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화자는 자신을 향한 이 고발이 실패할 것을 확신하며(8절), 나아가 이 거짓 고발자들이 패배할 것(9절)을 말합니다. 교회는 이 모든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온전히 순명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더 깊이 머무르고자, 이

부분은 성주간 수요일로 미루어 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은 무엇보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이사 49,3 참조). 그런데 그 방식은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별 받은 자, 하느님께 매 맞은 자’로 여겨지고(이사 53,4), ‘도살장의 끌려가는 어린 양’(이사 53,7)으로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제2독서 [필리 2,6-11]

그리스도 예수님께서서는 ⁶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⁷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⁸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⁹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¹⁰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¹¹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필리피서의 ‘그리스도 찬가’는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널리 알려지고, 전례 안에 채택되어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노래는 무엇보다 읽는 이로 하여금 파스카의 모든 신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과 마주하도록 합니다. 성무일도에서도 이를 주일 제1저녁기도의 찬가로 삼아, 신자들이 파스카 신비를 묵상하며 주님의 날을 맞이하도록 안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부분이 전례적 사용이 전제된 독립된 ‘찬가’로 작성되었다가 후에 서간에 들어온 것이 정설로 여겨졌지만, 여러 면에서 반론이 제기됩니다. 운율이 히브리적이지도, 그리스-로마적이지도 않다는 점, 그리고 필리피서 작성 이전에 초대교회 전례에서 사용된 기록이 없다는 점, 무엇보다 필리피서의 나머지 부분은 물론 전체 서간과도 용어적 주제적 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바오로 사도가 이전 전승을 바탕으로 새롭게 작성한 ‘찬가’로 이해하는 것이 무난해 보입니다.

이 찬가의 구약적 배경으로는 이사 52,13-53,12와 이사 45,23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넷째 노래의 ‘고난받는 주님의 종’ 이미지로 전반부의 그리스도의 ‘하강’과 자기비허가 그려집니다. 후반부에서는 이사 45,23을 참고하여 ‘모두가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위상을 표현하면서, 하느님께서 피조물에 대한 같은 권한을 허락 하심을 드러냅니다.

찬가는 9절을 시작하는 전치사 ‘그러므로’를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게 됩니다.

[6-8절] 전반부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낮아지시는 주님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주님은 이 모든 과정에서 능동적 주체로 나서시며,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정체성은 변하고, 이 움직임은 연속적입니다. 첫째 변화가 하느님과 같은 신분에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는 것이라면(6-7절), 그 다음은 인간과 같아진 상황에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7-8절).

“모습_{morphē}”이라는 단어는 ‘본성’, ‘이미지’, ‘여견’ 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신체적이고 외적인 요소보다는 사회적 여건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하느님의 지위로서 누리던 ‘영원함’을 내려놓고, ‘유한한 존재’로서의 조건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중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시는’ 표현은 모두 재귀대명사를 포함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 낮아짐을 행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얻은 ‘종’의 신분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는 주인에 대한 순종이고, 주님께서 온 생애를 통해 마지막까지 이를 지키십니다.

[9-11절] 후반부는 이제 그리스도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체는 하느님과 피조물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의 선택에 응답하시며, 다시 전우주의 주권을 공유하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 피조물들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찬가의 ‘드높이 올리시다^{hyperypsoō}’는 신약성서에서 단 한 번 사용된 동사로, 최고 수준의 찬양을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부활은 물론 승천까지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주님께서 강생하시면서 받은 것으로, 이제는 이것이 경배 대상이 될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신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무엇보다 모든 피조물이 언급함으로써 이 영광이 시공간을 넘어 지속됨을 전망합니다.

‘낮아지는 것’과 ‘높여지는 것’, 그리고 ‘종의 모습’과 ‘주님’의 영광이라는 명확한 대조 안에서 파스카 신비가 지닌 역설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내려놓으시고 마지막까지 낮아지셨기에, 하느님에 의해 다시 드높여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는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로서, 노예나 전쟁 포로, 중범죄자에게 부여되었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극도의 굴욕을 받아들이셨음을 분명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찬양의 대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을 드높이는 이 역설 안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요 22,29; 잠언 29,23; 마태 23,12).}

이 여정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되고,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편지의 수신자인 필리피인들은 물론, 모든 독자는 이 길을 각자의 삶에서 받아들여, 재현할 책무를 가집니다.

복 음 [마르 14,1-15,47]

¹파스카와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다. ²그러면서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에는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³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 마침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자가 값비싼 순 나르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⁴몇 사람이 불쾌해하며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 여자를 나무랐다. “왜 저렇게 향유를 허투루 쓰는가? ⁵저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터인데.” ⁶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왜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⁷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잘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⁸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바른 것이다. ⁹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¹⁰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수석 사제들에게 팔아넘기려고 그들을 찾아갔다. ¹¹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¹²무교절 첫날 곧 파스가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¹³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¹⁴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¹⁵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이층 방을 보여 줄 것이다. 거기에서 차려라.” ¹⁶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서 일러 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¹⁷저녁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셨다. ¹⁸그들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¹⁹그러자 제자들은 근심하며 차례로 묻기 시작하였다. “저는 아니겠지요?” ²⁰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는 열두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는 사람이다. ²¹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²²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²³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²⁴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²⁵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²⁶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²⁷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²⁸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갈 것이다.” ²⁹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떨어져 나갈 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³⁰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³¹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장담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³²그들은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런 다음 ³³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³⁴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 ³⁵예수님께서 앞으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시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 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며, ³⁶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

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
 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
 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³⁷예수님께서 돌
 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
 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
 란 말이나? ³⁸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³⁹예수님께서 다시 가
 서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⁴⁰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그
 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내리감겨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
 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다. ⁴¹예수님께
 서는 세 번째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되었다. 시간이 되어 사
 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⁴²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⁴³그러자 곧,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⁴⁴그분을 팔아넘길 자
 는, “내가 입 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잘
 끌고 가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두었다. ⁴⁵그
 가 와서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말하였다. “스승님!” 그러
 고 나서 입을 맞추었다. ⁴⁶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⁴⁷그때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
 이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그의 귀를 잘라 버렸다.
⁴⁸예수님께서 나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라
 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
 나? ⁴⁹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리
 된 것이다.” ⁵⁰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⁵¹어
 떤 젊은이가 알몸에 아마포만 두른 채 그분을 따라갔다. 사람

들이 그를 붙잡자, ⁵²그는 아마포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⁵³그들은 예수님을 대사제에게 끌고 갔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두 모여 왔다. ⁵⁴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저택 안뜰까지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쬔고 있었다. ⁵⁵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 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증언을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⁵⁶사실 많은 사람이 그분께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들어맞지 않았던 것이다. ⁵⁷더러는 나서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⁵⁸“우리는 저자가, ‘나는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⁵⁹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⁶⁰그러자 대사제가 한가운데로 나서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이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 된 일ियो?” ⁶¹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입을 다무신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물었다.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⁶²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⁶³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⁶⁴여러분도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단죄하였다. ⁶⁵어떤 자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린 다음, 주먹으로 치면서 놀려 대기 시작하였다. “알아맞혀 보아라.” 시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⁶⁶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사제의 하녀 하나가 와서, ⁶⁷불을 쬔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그를 찬찬히 살피면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요?” ⁶⁸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겠소” 베드로가 바깥으로 나가자 닭이 울었다. ⁶⁹그 하녀가 베드로를 보면서 곁에 서 있는 이들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예요.” ⁷⁰베드로는 또 부인하였다. 그런데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이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갈릴래아 사람이니 그들과 한패임에 틀림없소.” ⁷¹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⁷²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기 시작하였다. ^{15.1}아침이 되자 수석 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 곧 온 최고 의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²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³그러자 수석 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 ⁴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⁵예수님께서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⁶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 주곤 하였다. ⁷마침 바라빠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에 살인을 저지른 반란군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⁸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에게 해 오던 대로 해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⁹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유대인들의 임금을 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¹⁰빌라도는 수석 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¹¹그러나 수석 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그분이 아니라 바라빠를 풀어 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¹²빌라도가

다시 군중에게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대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요?”¹³ 그러자 군중은 거듭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¹⁴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요?”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¹⁵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풀어 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¹⁶ 군사들은 예수님을 틀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관저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¹⁷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얹어 머리에 씌우고 서는, 이렇게 말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¹⁸“유대인들의 임금님, 만세!”¹⁹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다.²⁰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갔다.²¹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²²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 터’라는 뜻이다.²³ 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²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²⁵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아홉 시였다.²⁶ 그분의 죄명 패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²⁷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28)·29}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³⁰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

신이나 구해 보아라.”³¹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³² 우리가 보고 믿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³³ 낮 열두 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³⁴ 오후 세 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다.³⁵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³⁶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말하였다.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봅시다.”³⁷ 예수님께서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³⁸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³⁹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 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⁴⁰ 여자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⁴¹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래아에 계실 때에 그분을 따르며 시중들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⁴² 이미 저녁때가 되어 있었다.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⁴³ 아리마태아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당히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열심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⁴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돌아가셨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인대장을 불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느냐고 물었다.⁴⁵ 빌라도는 백

인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다. ⁴⁶요셉은 아마포를 사 가지고 와서, 그분의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시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러 막아 놓았다. ⁴⁷마리아 막달레나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분을 어디에 모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긴 서론을 가진 수난사화’라는 별명을 가진 마르코 복음답게, 이 두 번째 복음에서 주님 수난 이야기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마르코 복음은 공관복음 중 상대적으로 짧음에도, 성지주일 복음 분량은 다른 두 복음서와 비슷합니다. 마태 128개절, 마르 119개절, 루카 114개절).

유다인과의 갈등은 일찍이 시작됩니다(마르 2,1-12). 카파르나움에서 첫 이적(마르 1,21-28) 이후 일련의 선교 여정 뒤에 다시 돌아온 카파르나움에서 안식일 논쟁을 시작으로 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갈등은 즉각적으로 깊어져서 결국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들은 그분을 없앨 모의를 하게 됩니다(마르 3,6).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세 번에 걸친 이 수난과 부활에 대한 예고가 이어집니다(마르 8,31-33; 9,30-32; 10,32-34).

슈낙켄부르크는 마르코 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기여하는 수난기의 네 가지 측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루돌프 슈낙켄부르크/김병학 역,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 분도출판사 2009, 88-94쪽).

첫째, 수난기에서는 앞서 심화되던 갈등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성전 정화 이후에 주님을 박해하는 주역이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로 바뀌게 됩니다(마르 11,8; 14,1). ‘어떻게 하면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궁리’하던 이들에게 이 성전 정화 사건은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이제 이를 빌미로 삼아, 수난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전개됩니다.

둘째, 이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수난신학적으로 해석됩니다. 기본적으로 주님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사람의 아들’로 제시됩니다. 그리고 이 칭호 안에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마르 10,45)라는 당신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수난기 안에서 이 칭호는 반복되며(마르 14,21.41), 이 대속적 죽음이 십자가 길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동시에 마르코는 ‘고난받는 주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모습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수난에 관한 언급에는 항상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부활의 전망이 동반됩니다. 이 수난에는 어둠이 짓누르지만, 그곳에는 이 죽음에서 솟아 나오는 빛도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던 절망적 상황이 끝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릴 통치자로서 그분 곁에 가장 가까이 머무르시게 되는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한’(마르 12,11)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넷째, 이 수난기는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길에서 주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당신을 따르도록 독려하시고, 무엇보다 죽음을 기억하며 거행할 것을 명하십니다. 새로운 성전으로서 교회는 매일의 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에 나서야 합니다. 첫 번째 수난예고에서 볼 수 있는 ‘박해받는 의인’으로서의 모습은 물론, 두 번째 수난예고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지배욕과 계급 차별을 포기’해야 하는 사명이 언급됩니다(마르 9,33-37). 이는 세 번째 수난예고에서 제베대

오의 아들들의 청을 거절하면서 분명해집니다.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마르 10,43). 수난기에 담겨 있는 최후 만찬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부활 이후 교회의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현존을 끊임없이 체험하면서, 이 희생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더불어 ‘성전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지는 장면’(마르 15,38)도 이제 이 죽음과 부활로 교회라는 새로운 구원 공동체가 탄생하는 징표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난기에 담겨 있는 박해받으시고 수난당해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초대교회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고백하던 예수 그리스도 이미지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 안에서는 부활의 전망도 놓치지 않으면서도, 무엇보다 십자가 사건이 강조됩니다. 즉 마르코가 전하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행적은 ‘십자가에서 당신 사명을 완수하신 것’이며,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른 헌신입니다.

마르코의 그리스도론적인 메시아 비밀 사상도 이 수난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복음은 독자들에게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알리고 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가리어져 있습니다. 정작 ‘더러운 영’들은 이를 알고 크게 외치지도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전달되지 못한 채, 이들은 함구령을 당할 뿐입니다. 더러 이적을 체험하고 정체성에 가까워지는 이도 있고(마르 5,43; 7,36), 베드로의 신앙고백도 있었지만(마르 8,29), 이 역시도 침묵을 명받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 사명이 분명하게 드러난 장면은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숨을 거두시는 것을 지켜본 백인대장의 고백입니다(마르 15,29).

복음은 그간의 가르침과 권위 있는 기적은 이 수난과 부활이라는 맥락과 함께 받아들여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해야만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주간을 시작하면서, 교회는 ‘고난받는 주님의 종’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초대합니다. 모든 이를 속량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그 길에 나서는 주님은 아버지에게서 듣고 배운 것을 그대로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순명합니다. 매 순간 도우심이 있음을 확신하기에,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맞서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의 명이 있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 임하는 것은 오롯이 주님의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이 모든 잔을 받아 안으십니다. 그 과정은 잠시 지나가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준비되었고, 실현되는 과정도 이 세상의 모든 제약을 존중합니다. ‘종의 모습’을 취하신다는 것은 인간이 지닌 한계와 어려움 모두를 겪기로 하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길에는 ‘희망’이 함께 했습니다. ‘주님의 종’은 모욕과 수모의 순간에도 끝내 부끄러운 처지가 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찬가도 스스로 낮아지신 그분을 아버지 하느님에게서 다시금 들어 높이시리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에 대한 피조물의 찬양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마르코 복음의 수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부활 사화를 적게 전하지만, 수난과 죽음을 언급하는 모든 장면에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훈〉

주님부활대축일

(낮미사)

제1독서 [사도 10,34-37ㄴ-43]

그 무렵 ³⁴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여러분은 ³⁷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래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³⁸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 주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³⁹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⁴⁰하느님께서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⁴¹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⁴²그분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⁴³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가톨릭교회의 전례력을 따른다면 부활시기에 교회공동체는 말씀의 전례 내에서 사도행전을 집중적으로 읽게 된다. 따라서 부활시기 말씀의 전례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 사도행전의 기저에 흐르는 루카 신학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필요하다.

신약 연구가들은 루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동일한 저자가 쓴 작품으로 생각한다. 루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저자가 가졌던 신학적 의도의 특징적인 면들은 다른 공관 복음서들과의 비교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그에 대한 신약 연구가들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루카 복음서의 서문이라 할 수 있는 루카 1,1-4에서 저자는 자신의 집필 의도를 밝힌다. 그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기초신학적 시도를 통해 당시의 그리스도교 가르침의 정당성과 그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기초신학적 시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사건과 사도들의 업적에 대한 (헬레니즘 세계의) 역사적 접근을 이르는 것이다. 물론 이 역사적 접근 방식이 어느 정도의 학문적 정확성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현대적 입장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1~2세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루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서술 방식과 문학적 우수함을 분명 높이 평가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당시 공동체 가르침의 정당성을, 또 그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루카에게 중요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은 사실상 루카와 그의 공동체가 처한 신앙의 위기와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루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대한 비평적 독서를 통해 그 작품들에 내재하는 관심과 의도가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학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임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예수의 재림^{parusia}에 대한 기대이다. 초세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지탱했던 가장 중요한 축은 재림에 대한 기대였으나, 임박한 재림을 고대하던 첫 세대가 죽음을 맞이 시작하며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였고, 공동체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재림에 대한 불신과 의심은 신앙공동체의 중심을 흔드는 일이었으며, 이와 함께 공동체의 다른 모든 가르침도 의문에 처하게 되었다. 루카는 자신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하지만 도래하지 않는 예수의 재림, 즉 종말에 대한 실망을 신학적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의 신학적 시도는 당시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초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그 설득력을 잃지 않는 종말에 대한 신학적-해석학적 구상에 기초한다. 그리스도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면 모두 한 번쯤은 접한 종말에 대한 신학적 해석,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루카 신학의 중심이다. 종말에 대한 새로운 해석학적 지평을 열으로써, 루카 신학은 한편으로는 당시의 공동체가 넘어서야 했던 신앙의 위기를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종말에 대한 희망을 생생하게 보존하는 데에 근본적 동력을 제공하였다.

루카 신학에 있어서 더욱 빛나는 점은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그가 단지 논리적 사유를 통해 자신의 신학을 전개한 것이 아니라, 문학적 도구들을 이용해 자신의 신학적 지평을 서술해 내었다는 것이다. 루카가 전하는 예수의 유년기 이야기에서부터 이미 이런 특징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시메온의 노래(루카 2,29-32)에서 아기 예수를 본 시메온은 하느님 구원의 징표, 메시아를 만난 기쁨을 노래하는데, 아기 예수를 보며 그는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고 이방 민

죽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신 하느님의 구원, 즉 종말의 완성을 앞당겨 보았음을 환희에 차서 노래한다. 이렇게 루카가 펼쳐놓은 신학적 지평 위에서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꼭 완성될 것이기에, ‘그 완성이 과연 언제일까?’라는 질문은 더 이상 신앙의 중심을 흔드는 질문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루카에 있어서 이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가져야 할 첫째 덕목은 ‘인내’이다. 참고 기다리는 공동체, 신앙의 흔들림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루카가 꿈꾸는 이상적 공동체의 모습이다. 초자연적 표징이나 놀라운 기적, 치유 등에 대해 보도하면서도 루카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구원에 대한 희망과 확신에 찬 공동체의 꾸준한 일상이다. 예수의 기적은 일상의 선행으로 이해되며, 유다 전통을 따르는 예수의 모습과 함께 루카는 자신의 독자들을 복음적 일상을 꾸준히 살아가는 신앙의 삶으로 초대한다.

다른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루카의 공동체에서도 내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수 사건을 체험한 첫 세대와 다음 세대가 죽음이나 연령의 노화를 통해 공동체의 지도적 위치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내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을 것이다. 특히 이런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 중에는 신학적 충돌인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양한 신학적 갈등 앞에 선 공동체에게 루카는 하나의 중요한 판단의 기준을 제공한다. 그것은 (예수를 직접 체험한) 사도들의 증언과 증거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으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뿐만 아니라 예수의 공생활 전반을 함께 했던 사도들의 증언과 증거가 공동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공동체의 내적-신

학적 갈등에 대한 여타의 해결 노력과는 매우 달랐다. 클레멘스의 서간이 보여 주는 것처럼 이런 갈등에 대해서 당시의 많은 공동체는 사도적 전승과 전통을 이어받은 공동체의 지도자, 즉 주교와 사제들의 권위에 대한 순명을 통해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루카는 이와 대조되게, 이런 제도적 권위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사도들의 본래적 체험과 그 증거를 신학적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왜 루카가 루카 복음서에 이어 사도행전을 썼는지가 이를 통해 이해된다. 루카는 사도들의 체험과 증거 안에서 예수 사건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이해지평이 열림을 자신의 둘째 작품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외적 제도를 통한 사도적 권위의 전승을 뛰어넘어 사도들의 체험과 증거에 대한 본래적 충실함을 신앙공동체의 기준으로 제시한 루카는 자신의 작품 곳곳에서 내적 사도성을 강조한다. 사도들은 루카 복음서에서 처음부터 중심역할을 수행한다(루카 6,13-16; 사도 1,2,13). 그들이 예수의 공생활을 함께 체험하고 후대에 증언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중심에 있으며, 그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한 일차적 증인들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부여된 증인의 위상은 결정적이면서도 일회적인 것이어서 다른 사람들, 그들의 제자들에게조차도 물려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들의 증언이 결국 그리스도교 신학의 출발점인 것이다. 사도에 대한 루카의 특별한 비중은 ‘제자’와 ‘사도’에 대한 그의 용어 사용에서도 나타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 즉 세례받고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던 모든 사람을 루카는 예수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사람, 예수의 ‘제자’라고 부른다. 따라서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제자’라는 용어는 루카에 있어서 덜 제한적이면서 매우 관대하게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사도’라는 용어는 매우 엄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사도

행전에서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바오로조차도 (사도 14,14의 예외적 사용을 제외한다면!) ‘사도’라는 호칭으로 불리지 않는다. 물론 루카에게 있어서 바오로의 업적이 과소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바오로는 사도 세대 이후의 가장 중심적 인물로 묘사되어 있으며, 그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범, 특히 공동체 지도자들의 모범으로 그려진다.

사도행전이 무엇보다도 관심을 두는 점은 그리스도 공동체의 건설이다. 사도행전은 초대 공동체의 모습을 매우 이상적으로 서술한다. 그리고 이런 이상적 모습을 더 각인하기 위해 루카는 자주 ‘하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루카 1,14; 2,1.46; 4,24; 5,12; 8,6; 15,25). 그리스도 공동체가 하나로 일치된 모습이 루카의 꿈이었기에, 그는 초대 공동체에 자신의 꿈을 투영한다. 예를 들어, 갈라 2장에서는 바오로와 사도들의 갈등이 심도 있게 소개되지만, 사도 15장에서는 모든 문제가 평화로이 해결된다는 ‘일치’의 테마를 보여 준다. 갈라티아와 코린토에서 있었던 공동체의 내적 갈등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침묵하는 것도 바로 이런 까닭일 것이다.

오늘의 독서인 사도 10,34-11,37-43은 사도행전의 문학적 구조에서 볼 때, 사도 9,32-12,25의 틀 안에서 읽어야 한다. 사도 9,32-12,25는 사도들의 이방 선교가 어떻게 시작하였는지를 묘사하는 부분이다. 사도 9,32-12,25에 자리한 이방선교의 도입 부분은 사도 10,1-11,18이라는 하나의 내적 단위를 갖고 있다.

사도 9,32-9,43

사도 10,1-11,18

사도 11,19-12,25

사도 10,1-11,18에서 루카는 코르넬리우스와 베드로라는 두 인물을 중심으로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가 어떻게 유대교적 뿌리를 넘어 이방 민족들에게로 확장되어 나가는지를 서술한다.

사도 10,1-8 코르넬리우스가 베드로를 초대하라는 환시를 봄

사도 10,9-16 베드로가 율법이 정한 속된 것들과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는 환시를 봄

사도 10,17-33 코르넬리우스의 초대에 베드로가 응함

사도 10,34-43 베드로의 깨달음과 설교

사도 10,44-48 설교를 듣던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자 베드로가 세
례를 받도록 명함

사도 11,1-18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자신의 환시와 이방인들의
성령체험을 전함

이렇게 볼 때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느님의 환시를 체험한 베드로가 역시 하느님의 환시를 체험한 코르넬리우스의 집으로 초대되어 가서 서로의 체험을 종합하며 얻은 깨달음, 즉 이방인 전교에 대한 신학적 전환을 개관하는 부분이다. 그중에서도 사도 10,34-43은 이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베드로가 이제 (대부분이 이방인인!)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지니기 위해 가져야 할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다.

[37-38절] 사도 10,34ㄱ에서 (사도 8,35; 18,14에서와 같이) 장중하게 시작한 베드로의 연설은 이제 예수 사건이 이미 코르넬리우스의 집안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음을 가정한다(루카 7,17; 사도 2,22; 26,26 참조).

그러나 베드로는 이 대목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청중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사건의 중요한 맥을 짚어나가기 위해서이다. 베드로의 연설에서 나타나는 예수사건의 맥은 공관 복음서 사가들의 관점과 일치하며, 마치 공관 복음서의 요약처럼 들린다. 이 예수사건은 결코 창작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었던 공간과 시간의 영역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이 이 연설에서 여러 번에 걸쳐 강조된다. “갈릴래아로부터”, “유다 전체에”, “나자렛 출신” 등등. 베드로에 의하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예수라는 인물은 바로 하느님이 성령과 힘을 부어 준 자이다. 이는 초대 교회가 강조했던 ‘예수=그리스도’의 케뤼그마(선포)인데, 여기서 베드로는 기름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 메시아(=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린다. 구약의 메시아가 기름부음 받은 자라면, 그리스도는 하느님 영의 부음을 받은 자이다. 38절은 예수의 치유를 강조하는데, 여기서 예수는 마치 선교사처럼 “두루 다니시며” 기적을 베푸는 치유자처럼 묘사된다. 그런데 이 치유를 묘사함에 있어서 루카가 강조하는 바는 그 초자연적 성격보다는 그것이 갖는 선행으로서의 의미와, 또한 치유의 기적이 바로 하느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표징이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려지는 메시아의 모습은 이사 61,1이하에 소개되는 메시아 상에 부합한다.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이 예수에게 가능했던 이유가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음을 못 박아 말한다.

[39ㄱ절] 사도들의 일차적 정체는 바로 그들이 체험한 예수사건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역할이다. 더구나 이 증거적 역할은 어느 한

사람의 증언으로써 확정될 수 없기에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 연대 안에서 자기 증언의 유효함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한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란 베드로의 동반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39ㄴ-41절] 예수와 ‘죽음-부활’에 대한 케뤼그마(선포)가 38절의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케뤼그마를 뒤따른다. 예수의 죽음-부활에 대한 케뤼그마는 그 내용상 1코린 15,1-3과 마찬가지로 부활과 함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인!) 부활한 예수의 사도들에게 나타나심을 선포한다. 베드로의 연설에서 특징적인 면이 있다면 (사도성을 강조하기 위해!) 부활한 예수가 나타난 것이 모든 이에게가 아니라 ‘미리 선정된 증인’, 즉 “우리”(사도)들에게 라는 것을 강조한 점이다.

[42절] 이 “우리”(사도)들은 부활한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신 예수 부활의 확실한 증인들이며, 그리고 이 모든 기쁜 소식을 선포(케뤼그마)하는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다. 42절의 “백성”은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서 그리스도를 묘사한 부분은 이런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하느님 백성으로 알아들을 수도 있다.

[43절] 베드로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인 예언자들의 증언에 기초하여 예수사건이 갖는 구원의 지평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기대를 넘어서는 것임을 논증한다. 여기서 어떤 특정한 예언자나 예언서가 인용된 것은 아니지만, 유배 이후의 예언에 나타나는 보편적 메시아니즘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베드로의 연설은 “하느님을 경외하고 의

를 행하는 사람”을 하느님은 다 받아주신다(35절)는 구약신학으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보편구원 사상을 열어간다. 또한 베드로가 인간의 행함(35절)과 인간의 믿음(43절)을 조화시키려 한다는 것이 그의 설교에서 엿보인다. ‘의를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음’을 문학적으로 교차시키면서 믿음과 행위에 대한 신학적 논쟁의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야고 2,14-26 참조).

사도 10,34-43에서 우선적으로 독자가 읽고 느껴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베드로 연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연설에는 ①예수=그리스도(메시아)의 케뤼그마와 ②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케뤼그마가 함께 놓여있다. 그리고 구원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행위와 믿음에 대한 신학적 갈등의 해소가 모색되고 있다. 당시의 갈등과 대립의 상황에서 조화로운 중재의 길을 찾는 초대 공동체, 특히 베드로 사도의 노력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갈등과 대립의 상황에서 어느 한 방향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버리는 길이 아니라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길을 찾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연설에서 한 가지 분명한 선택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베드로의 입장이다.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는 유다인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공동체로 출발하였다. 그 유다인들은 예수의 일차적 신원을 (유다 전통이 기다려온) 메시아로 해석하면서, 자신들을 유다 전통의 한 지류로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지니려는 이방인들에게는 먼저 유다 전통을 받아들이라고 요청하는 것은 당시의 유다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일이었다.

베드로의 연설은 이런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의 종속적인 태도에 반대하는,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신학적 해방의 선포였다. 물론 베드로의 입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건을 (유다 전통이 지켜온) 야훼 신앙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 베드로의 구원관 안에서 유대인은 여전히 율법에 충실히 머물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케뤼그마를 받아들일 때 올바른 구원의 길에 서게 된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차별 없는 하느님을 고백하며, 예수사건을 통해 선포된 새로운 권위가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던 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구원의 지평을 갖고 있음을 선언한다. 이것이 베드로 자신과 코르넬리우스의 환시를 통해 그가 얻은 깨달음이다.

44절 이후, 이제 베드로의 연설을 듣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장면에서 ①의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느님의 받아들임, ②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한 죄의 용서에 이어 성령의 차원이 드러난다. 연설을 듣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리는 장면은 베드로의 연설이 신적 권위의 인준을 받는 장면이다. 베드로의 연설, 성령의 내림은 세례와 함께 마무리된다. 베드로의 연설을 듣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모두를 (즉, 할례받은 유대인들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모두를) 그리스도 공동체는 새로운 하느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현대 세계에서 많은 사람은 차라리 종교가 없었더라면 세상이 더 평화로웠을 것으로 생각한다. 세계사와 우리의 역사를 조금은 엄격한 의미로 반성해보고, 또 아직도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이 존재하는 우리의 세상을 투명한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런 비종교적 또는 반종교적

사고는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우리 천주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개신교의 신학과 여러 기타 종교들은 구원에 대한 폐쇄적 관점을 유지하며 구원의 실질적 전매자처럼 자신을 인식하고 또 선전한다. 그와 함께 신앙의 신념이 종교적 독선으로 변질되어, 폭력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오늘의 사도행전 독서는 이러한 독선적 구원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해방의 길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렇게 펼쳐진 새로운 길 앞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공동체의 놀라운 모습을 감동적으로 서술한다. 이렇게 오늘의 독서는 (자기보호와 자기연민에 빠진) 폐쇄적 사고의 틀을 뛰어넘을 때 차별 없이 모든 이를 받아들이시는 하느님, 믿는 이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유로이 활동하시는 성령의 함께 있음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가르친다.

제2독서 [콜로 3,1-4]

형제 여러분, ¹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²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³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⁴여러분의 생명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콜로새 공동체는 바오로에 의해서 직접 세운 공동체가 아니다. 바오로의 협력자인 에파프라스가 이 공동체를 세웠다. 그리고 콜로 1,4-5,7;

2,1; 4,12-13 등등은 문학적-신학적 관점에서 다른 바오로 서간들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많은 신약성서 연구가들은 이 서간의 바오로 친저성에 대해 의심한다.

콜로새는 소아시아에 위치한 도시로 양털을 가공하는 섬유공업 및 상업의 중심지였다. 주후 61년경 콜로새는 인근에 위치한 라오디케이아와 히에라폴리스 등의 도시와 함께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그 후 상업적 중요성에 기인하여 다시 복구되었다. 시간적인 면에서 서기 61년경의 지진 전에, 아니면 그 후에 콜로새서가 쓰였는지는 확실히 규명할 수 없으나, 콜로새서에 이러한 자연현상에 대한 콜로새 사람들의 불안함을 엿볼 수 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자연재해를 우주적 질서가 붕괴되는 전조로 보는 당시 세계관의 영향 아래 있었을 것이다. 콜로 2,8.20 등에 등장하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원소’란 이런 우주적 질서의 붕괴와 관련된 개념들이다(콜로 1,16; 2,10.15 참조).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이단의 가르침은 쉽게 수용될 수 있었는데, 이단은 초자연적 존재들을 숭배함으로써 세상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가르쳤다(콜로 2,18.23 참조). 콜로새서의 저자는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이단적 가르침들과 그리스도교의 사상이 혼합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

콜로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단순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콜로 1-2장은 서간의 도입과 이단적 가르침들에 관한 토론, 그리고 콜로 3-4장은 교육적 교훈과 서간의 마무리이다. 따라서 오늘의 독자인 콜로 3,1-4은 콜로새서의 저자가 서간의 전반부인 이단과의 토론-논쟁을 마치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교육적 교훈을 전개하기 시작하는 부분이다.

[1절] 시작 부분의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를 직역한다면 ‘함께 일으켜졌으니’라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을 의미한다. 전례적으로 본다면 세례받음을 뜻한다. 콜로새서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이미 구원의 현실로 들어왔고, 부활에 참여한 것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콜로새서의 세례와 구원에 대한 이해는 이미 콜로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발견된다. 거기에서 저자는 콜로새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세상의 정령들에게서 벗어났다고 말하였다. (세상의 정령들에게서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것을 찾아야 하는데, 이 ‘위’는 ‘세상’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플라톤의 철학적 영향 아래에 있던 헬레니즘 세계에서는 신적 세계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 ‘위’의 세상은 콜로새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곳이다. 이 묘사는 그리스도가 ‘위’의 세상에서 지니는 왕적 권능을 암시한다(시편 110 참조). 따라서 이 ‘위’는 (헬레니즘 사상이 말하는 신적 세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능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2절] ‘생각하다’라는 그리스어는 ‘판단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며, 이런 뜻으로 2절을 의역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이해가 가능하다. “위에 있는 것을 따라서 판단하고 땅에 있는 것을 따라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2절에서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면 ‘위’와 ‘땅’의 대조이다. 두 개념은 우선 외적-공간적으로 대조되지만, 실제로 콜로새서의 저자가 중요시하는 것은 그 내적 가치임을 콜로 3장의 문맥에서 알 수 있다.

[3절] 1절의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에 대한 이해가 여기서 좀 더 자세히 기술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례와 함께 죽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땅’에 속해 있지 않다. 그러나 그들이 세례를 통해 받은

새 생명은 아직 완전히 실현된 것이 아닌 감추어진 실재이다. 여기서 그들이 받은 새 생명의 주체는 하느님이며, 그리스도의 생명 역시 아직 감추어진 실재로 그들의 생명과 함께 하느님 안에 있다. 이렇게 3절에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하느님 안에서의 동질성이 강조되고 있다.

[4절] 3절에서 보여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동질성은 4절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지금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으나, 이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 생명의 주체로서 나타나실 것이며,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의 생명 역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며 나타날 것이다.

콜로 3,1-4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헬레니즘의 세계관을 대하는 저자의 태도이다. 콜로새는 헬레니즘 세계의 상업적 중심지였으며, 따라서 헬레니즘 세계관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세계관 내에서 만나는 인간의 염원은 세상을 떠나 이데아의 세계, 즉 '위'의 세상에 도달하는 것이다. 콜로새서의 저자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콜로 3,1부터 자신의 가르침을 시작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헬레니즘 세계관에 맞서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헬레니즘 사상을 수용하면서, 이를 그리스도론적으로 재해석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헬레니즘 세계관이 제시하는 인간의 이상적 상황, 즉 '위'에서의 생명에 참여함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례를 통해 이미 일어난 사건이다. 물론 저자가 헬레니즘 세계관이 제시하는 '세상'에 대한 부정적 시각까지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콜로새 공동체의 사람들이 익숙한 헬레니즘의 세계관을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리

스도인들의 새 생명을 해석한다. 하지만 그는 그 세계관에 종속되지 않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 그는 공동체를 향한 가르침의 초석을 놓는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새 생명에 참여한, 따라서 헬레니즘이 꿈꾸는 이상적 상황에 이미 다다른 실존이다. 그런 이상적 상황에 이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콜로새서는 한 가지 요청을 내놓는다. 그것은 새 생명에 참여한 이들에게 그들이 새로운 가치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콜로새서가 요청하는 새로운 가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삶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뒤따르는 내용은 바로 이 질문에 집중한다.

복 음 [요한 20,1-9]

¹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²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까.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³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⁴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⁵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⁶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⁷예수님의 얼굴을 찔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곳에 개켜져 있었다. ⁸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⁹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

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한 20,1-9는 예수 부활에 대한 요한의 보도인 요한 20,1-31의 내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물론 요한 21장에서도 부활한 예수에 대한 보도는 이어지고 있으나, 요한 21,30-31의 맺음말은 문학적 단위를 마무리하는 종결로 볼 수 있다. 요한 20,1-31은 다음의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요한 20,1-18 부활 (무덤에서)
- 요한 20,19-23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 요한 20,24-29 토마스에게 나타나심
- 요한 20,30-31 맺음말

요한 20,1-18은 이렇게 예수 부활에 대한 보도를 이끌면서 부활 사건에 대한 보도와 부활한 예수와의 첫 번째 만남을 전하고 있으며, 따라서 복음을 복음(기쁜 소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결정적인 내용을 전하는 단락이다. 그런데 요한 20,1-18은 문화적인 면에서 긴장 관계에 있는 두 부분으로 다시 나뉜다.

- 요한 20,1-9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
- 요한 20,10-18 마리아

두 이야기는 모두 부활에 대한 보도인데, (전승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보도는 서로 다른 두 전승으로부터 출발해 요한 복음서의 편집자에 의해 함께 놓이게 된 듯하다. 공관 복음서에서는 베드로와 예수

께서 사랑하신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찾을 수 없는 반면, 마리아의 이야기는 마르코 복음서의 보도와 상당한 유사함을 보인다. 이는 (전승사적 관점에서 볼 때) 마리아에 대한 보도가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에 대한 보도보다 더 오래된 전승임을 추측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문학적 긴장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전승을 묶는 강한 끈이 있는데, 그것은 ‘빈무덤’이라는 신학적 표상이다.

[1절] 부활 아침에 대한 요한 복음서의 ‘아직 어두운 이른 아침’은 마르코 복음서의 아침 해가 뜬 시점과는 차이를 보인다. 왜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는지에 대해 요한 복음서는 설명하지 않으며, 다른 묘사 없이 즉각적으로 무덤의 돌이 치워져 있었음을 전한다.

[2절] 마리아가 무덤을 들여다보았는지도 언급하지 않은 채, 복음사가는 마리아가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에게 갔다는 것을 보도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전하는데, 그녀는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의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추측한 바를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다: 예수의 시신이 어딘가로 치워졌으며,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요한 복음서에 의하면!). 마리아는 홀로 무덤에 갔었던 것처럼 보도되었음에도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였다.

[3-5절] 베드로와 (요한 복음서에만 나오는)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무덤으로 향하는데,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는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한다. 요한 복음서는 이외에도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를 비교하는 듯한 내용을 전한다.

①요한 18,15-16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는 체포된 예수를 따라 용감하게 대제관의 궁전으로 들어가지만, 베드로는 그 제자가 나와 데리고 들어간다.

②요한 18,17-27에서 베드로는 대제관의 궁전에서 예수를 세 번 부인하고 달아나지만, 요한 19,26-27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는 예수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한다.

[6-7절] 베드로는 이 제자보다 늦게 도착하기는 하지만 무덤으로는 먼저 들어간다. 베드로가 본 것은 아마포와 수건이다. 특히 수건은 “바로 한곳에 개켜져 있었다”라고 증언되는데, 이는 잘 정돈된 모습이다. 그렇게 잘 정돈되어 있었다는 것은 시신이 도난당한 것이 아님을 암시한다.

[8절] 그리고 다른 제자가 들어와서 베드로가 본 것을 보고 “믿었다”(!). 여기서 믿음은 어떤 의미일까? ‘믿음’이라는 그리스어가 요한 복음서의 신학적 용어임을 감안한다면, 다른 제자의 믿음은 마리아의 증언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 대한 일종의 비교가 눈에 띄는데, 이와 같은 비교를 몇몇 연구가들은 유다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상징적 비교라고 해설한다. 즉 베드로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며, 다른 제자는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고 있는데,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먼저 보지만, 그에 대한 믿음에는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르게 됨을 요한 복음서의 저자가 이 상징적 보도를 통해 말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9절] 9절의 의미에 대해 연구가들의 토론이 있다. 8절의 “믿었다”와 9절의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빈무덤을 보고 부활을 믿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했음을 9절이 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는 8절을 후대의 편집으로 보고 7절과 9절을 연이어 읽는 것도 가능하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빈무덤 사건 앞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아직 부활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깨달음은 이제부터 보도될 부활한 예수와의 직접적 대면을 통해 비로소 온전해진다.

부활에 대한 네 복음서의 보도는 문자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은 복음사가들이 서로에게 전해진 전승과 각자의 공동체의 상이한 상황 안에서 부활에 대해 전해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모든 전승이 갖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의 부활 장면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으며, 제자들과 여인들이 확인한 것은 비어있는 무덤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덧붙여질 수 있다. 그것은 그 빈무덤을 보고 그 누구도 그 현장에서 ‘아! 그분은 정말로 부활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을 읽는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이와 같은 부활에 대한, 단지 빈무덤에 대한 보도는 허전하기까지 하다. 사람들은 영광스럽고 환희에 찬 부활 장면을, 그리고 장엄하고 웅장한 제자들의 고백을 기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복음서도 이와 같은 청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전승들과 함께 자신들의 공동체를 향한 신학적 해석과 더불어 부활에 대한 보도를 편집하지만, 그 역사성을 왜곡하지 않는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더 정

확히 말하자면 진리를 전해야 한다는 본연의 사명을 결코 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 부활을 빈무덤이라는 표상으로 보도한 것에는 역사성의 보존이라는 사실 외에 좀 더 적극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부활이라는 실재, 부활이라는 현실의 크기와 무게가 너무나 거대하기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비어있는’ 무덤이 적합한 표상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부활의 실재 앞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 예수를 사랑했던 여인들조차도 예수 자신이 그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언급한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그들의 부족함에 대한 묘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부활이라는 거대한 신비에 관한 서술이기도 하다.

예수는 진실로 죽었고 진실로 부활했음을 오늘의 공동체는 미사 전례 중 신앙의 신비에서 한목소리로 노래한다. 그리고 오늘 부활대축일을 맞아 예수 부활을 우리는 한 믿음으로 고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예수 부활의 공동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오늘의 복음은 과연 우리가 부활의 실재를 알아듣는데 있어서 빈무덤 앞에 섰던 제자들보다 더 나은지에 대해 질문한다. 이 질문과 함께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란 부활이라는 사건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 우리들의 현재에 주어진 선택, 참 생명으로의 결단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최승정〉

부활 제2주일

(사백주일, 하느님의 자비주일)

오늘은 부활 8부 축일로 사백주일(卸白主日), 부활 제2주일입니다. 부활 때 세례받은 이들이 흰옷을 벗고 일상의 삶에 회귀한다는 전통적 축일이며 2001년부터는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은 이른바 인혁당 관계자 여덟 분이 사형당한 날이며, 4월 10일은 국회의원 총선거일입니다.

부활의 징표인 세례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는 세례를 통해 장엄하게 재현하고 확인합니다. 이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부활의 신비를 세례를 통해 깨닫고 확인했습니다. 부활은 바로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고”(골로 3.1) “세속적 욕망을 죽이고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욕정과 못된 욕심과 우상숭배나 다름없는 탐욕 따위의 욕망을”(골로 3.5) 끊어버리는 결단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활은 회개 곧 질적 변화, 영적 전환입니다. 우상숭배를 끊어버리는 결단입니다. 우상숭배는 바로 욕정과 탐욕이기도 합니다. 사실 세례 때 우리는 죄와 유혹과 악마와 온갖 거짓 등을 끊어버리겠다고 세 번이나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과 약속과 결단을 우리는 망각한 채, 옛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매일 미사 때 가

숨을 치며 뉘우치지만 많은 경우 형식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적어도 우리는 주일 미사 때만이라도 잠시 멈춰 진지하게 뉘우치며 가슴을 치고 하느님께 자비와 용서를 청하며 세례의 교훈과 함께 부활과 재생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했으면 합니다. 바로 오늘이 그때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주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주일

2000년 대희년 4월 30일, 부활 제2주일에 요한바오로2세 교황은 폴란드의 마리아 파우스티나^{Maria Faustina Kowalska}(1905-1938년) 수녀님을 성녀로 선포하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기리도록 선언했습니다. 이에 그 해 5월 5일에 교령을 발표하고 2001년부터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마리아 파우스티나 성녀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과정도 마치지 못한 채 10세 때부터 가정부로 일하면서 수녀원에 입회하고자 했으나 부모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환시를 체험하고 1925년 20세 때에 자비의 성모수녀회^{Congregation of the Sisters of Our Lady of Mercy}에 입회해 수녀원에서 주방, 정원 문지기 소임 등을 거치면서 하느님과 내적 일치를 이루며 생활했습니다. 그 후 폐결핵에 시달리면서도 하느님의 자비를 전적으로 확신하던 중 1938년 33세의 나이로 선종했습니다. 예수님의 환시를 체험한 성녀는 “예수님, 저는 주님께 의탁합니다”라는 환청을 듣고 영적 지도 사제에게 고백 설명한 후 그의 권고에 따라 자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정한 배경입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청하는 이 기도를 오늘 더욱 정성껏 바칩니다.

우상을 부수고 척결해야

오늘의 우리 정치사회 현실은 온통 우상과 미신투성이입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송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첫 계명을 외면한 채, 우리는 기계적으로만 하느님을 부르고 있는 모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가 손바닥에 왕(王)을 쓰고 나와 거짓말을 해도 상관하지 않고 대통령이 된 그가 우상과 미신의 주역인 천공이라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의 따라 국정을 펼치고 있음을 최재영 목사가 공개적으로 증언하고 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정치권 등 모두 눈 감고 잠잠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언론과 정치권은 그렇다 치고 미신과 우상숭배 일임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교와 사제, 수도자들도 바로 이사야 예언자가 무섭게 꾸짖은 “짚지도 못하는 병어리개”(이사 56,10)임을 고백하며 속죄기도를 올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참으로 죄송합니다. 저희가 입으로만 주님의 십자가를 고백하며 말로만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뿐 십자가와 부활의 참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이 우상에 맞서 싸우는 순교임을 깨닫고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듯이 저희도 십자가를 통해 온 겨레를 구한다는 철칙을 깨닫고 실천케 해주소서.

한 분이신 거룩하신 하느님,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정의구현사제단 50주년과 인혁당 희생자들을 기리며

4월 9일은 이른바 인혁당 관계자 여덟 분이 사형당한 날로 내년이면 50년이 됩니다. 올해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창립 50주년을 맞습니다. 인혁당 관계자들은 2007년 8월,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상흔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덟 분 중의 한 분인 당시 경기여고 교사 김용원 선생님의 4살 된 딸이 이제는 53세 나이가 되어 한예종을 졸업하고 영화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올해 50여 년의 사제단 역사를 영상으로 만들고자 사제단 총회 현장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50여 년의 사제단 역사를 떠올리며 앞서간 선배들과 선후배 동료 사제들 수도자들과 은인 교우들과 동지들을 마음에 모시고 정성껏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회개한 바오로 사도는 50년경부터 서간을 집필해 예수님의 삶을 증언했고 복음사가들은 70년경부터 1세기 말 사이에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50여 년이 신앙이 싹트고 성경이 집필되던 은총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50여 년은 한 세대이며 넓은 의미에서는 동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제단 50여 년의 삶을 되돌아보면 예수님의 삶을 증언했던 복음사가들의 예수님께 대한 생생한 증언과 흡사하다는 해석과 함께 연계해 묵상합니다.

투표는 아름다운 기도, 순교적 결단이어야

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 했으니 우리는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민심은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그 민심이 바로 천심에 기초해 변치 않는 불변의 가치에 기초한 민심, 순국선열들의 항일 투쟁과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몸 바친 청년 학생 시민 노동자 농민 등 위인들의 희생과 헌신, 민족의 일치와 화해를 위해 몸 바친 선구자들의 행업입니다.

제단에서 미사 봉헌하는 마음으로 성체를 모시는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하며 투표소에서 한 표를 하느님께 봉헌해야 합니다. 투표하기 전에 꼭 기도를 올립니다.

“하느님, 저의 이 한 표를 하느님과 겨레를 위해 봉헌합니다. 이 한 표가 저와 후보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선’을 위해 봉헌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귀중한 한 표가 바로 공동체 선의를 위한 봉헌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시대의 징표를 깨닫고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순교적 결단이 되게 하소서. 저뿐 아니라 우리 겨레 모두를 깨우쳐 주소서!

그리하여 거짓 언론의 예측, 대중을 속이는 여론조사의 허구를 확인 해주소서.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하고 외쳤던 그 군중이 물론 비록 다 같은 군중은 아니라 할지라도 바로 며칠 뒤에는 주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크게 외쳤던 그 모순의 함성을 되새기며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응시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저희는 부활을 깨닫고 확신하고 확인합니다. 민주주의는 민중의 부활, 통일은 민족의 부활임을 외쳤던 문익환 목사를 기리며 다짐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사도 4,32-35]

³²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³³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³⁴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³⁵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1. 문맥과 주제

사도행전은 루카 복음의 속편입니다. 전반부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중심으로 후반부는 바오로 사도를 중심으로 한 초기교회 공동체의 형성과 성장과정의 기록입니다.

학자들은 루카 복음과 사도행전의 어휘와 표현 방식이 너무 다르다고 지적하면서도, 사도행전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곧 전통 유다교와 그리스도 신교 공동체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전반부 15장까지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중심으로 한 사도교회의 출범과 확장 과정 그리고 15장 이후부터는 바오로 사도를 중심으로 중동지방 곧 오늘의 터키와 그리스 나아가 로마 등으로 그리스도교가 확산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강림 체험입니다. 사도들의 이 모든 증언과 선교행업은 바로 성령께서 주도하신 일입니다.

1959년 1월 25일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에 제2차 바티칸공의회 개

최 뜻을 밝히신 요한 23세 교황이 바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제2의
성령강림을 실현’하자고 선언했습니다. 아조르나멘토Aggiornamento, 매일
매일 적응하고 변화되어 나아간다는 이 단어는 바로 신앙의 일상화를
강조한 말씀으로 매일 매 순간 성령의 감도와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변하고 응답하자는 호소와 외침인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매일 매 순간 성령의 감도하심에 대한 성실한 응답입
니다.

오늘의 제1독서는 바로 초기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삶의 묘사로
사도 2,43-47의 반복과 재확인입니다.

“한마음 한뜻”, “공동소유”, “부활 증언과 은총 체험”, “궁핍한 사람
이 하나도 없었다.” 이 네 말마디로 압축해 묵상합니다. 그런데 이 말
씀을 문자적 기계적으로만 해석해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른바 사이비
공동체가 늘 생겨났고 이 순간에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종교적
사기는 더욱 큰 죄입니다. 나아가 정치 사회적으로는 칼 맑스의 이론
을 악용한 공산독재 체제가 출현해 고약한 정치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
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수도원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 나눔의 삶
입니다. 사랑과 자선을 강조하는 분배 정의는 이상적 공동체 실현을
위한 예범적 길잡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토지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무엇보다도 토지 공유를 실현해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
으로 제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강력하게 주창해야 할 공유의 원리입니다.

2. 발췌 구절 묵상과 기도

1)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32절).

공동체(Communitas)는 함께 하나가 된다는 바로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뜻으로 무엇보다도 개인 소유를 넘어 모든 것을 공동소유로 한다는 선언입니다. 선현들의 말씀대로 하늘과 땅, 산과 물은 모두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의 선물을 개인이 소유해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를 강조하는 이기적 자본주의와 모두의 소유라는 공동체적 공유 사상 사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 성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수도자들의 나눔과 헌신의 삶을 표본으로 삼고 루카 복음사가의 이 선언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며 나눔과 실천을 다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저는 교우들에게, 51%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 그 회사의 주도권을 가진다는 주식회사의 원리를 기초로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재산을 100% 다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49%는 언제나 자기 소유로 하고 그 외 51% 또는 그 이상을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봉헌하면 그것이 훌륭한 사랑과 자선의 실천이라고 설명합니다. 말하자면 개인 소유는 49%, 이웃사랑은 51%라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이웃사랑과 공동체 정신이 내 삶의 주도권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도 49%는 언제나 내 개인 몫으로 남아 있다는 설명입니다. 사람이 결코 100% 완전할 수 없으니 적어도 51%는 이웃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자세를 지니라는 뜻입니다. 시간, 능력, 재물 등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니며 오늘 제1독서를 묵상하고 실천을 다짐합니다. 49% 나의 몫을 40%, 30%, 10%까지 줄인다면 그리고 이웃을 위해 80%, 90% 이상 헌신한다면 그분들이 바로 살신성인의 성인성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아중심의 이기심, 소유욕을 가 능한한 많이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 정신은 바로 양보하는 삶입 니다. 죽어야만 부활한다는 원리는 내어줄 때만 성화된다는 가르침입 니다. 개인주의, 이기심 극복이 바로 부활의 지름길입니다.

2)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33절).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합니다. 예수님처럼 사 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면 은총이 보장됩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잊어버리고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다짐하고 순간순간 화살기도를 바치며 되뇌어야 합니 다. 성인성녀들은 숨 쉴 때마다 늘 자동적으로 하느님을 생각하고 사 신 분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봉헌 하고 바치는 첫 기도의 뜻을 생각하며 실천합니다.

3) 그들 가운데 궁핍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 저마다 필요한 만 큼 나누어 받은 하였다^(34-35절).

궁핍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의 책무입니다. 땅과 집을 소유한 이들은 그것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무소유와 공유의 아름다움입니다. 수도자들이 존경받는 이유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에게 다음 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거저 주어라. ... 여행 보따리도 여벌 옷도 신

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마태 10,9-10).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벌 옷, 신발, 지팡이, 각종 소품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울 뿐입니다. 새삼 사막의 안토니오 성인 등 모든 모범적 성인들을 떠올리며 반성하고 부활은 바로 나눔과 비움을 통해서만 실현되는 하느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사랑의 실천을 다짐합니다.

제2독서 [1요한 5,1-6]

사랑하는 여러분, ¹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 자녀도 사랑합니다. ²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면, 그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³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⁴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 ⁵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⁶그분께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이십니다.

1. 문맥과 주제

요한 1:2-3서 등을 우리는 요한계 문헌이라 부릅니다. 그중 2:3독서는 편지 형식인데 요한1서는 일종의 소논문으로 당시에 만연해있던 왜곡된 그리스도론과 일그러진 윤리적 교회관에 대한 악영향과 위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요한1서와 요한 복음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의 문체를 비교 분석하면서 이 두 문헌의 제3원천을 가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한1서 2,1에서 저자는 위로자 곧 변호자인 바라클리투스(Paraclitus)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매우 의아한 표현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14,16; 15,26; 16,7 등에서는 위로자를 성령으로 장엄하게 선언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는 모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 학자들은 초기교회 당시 내부에 있었던 신학적 이견 또는 이단 등과 연계된 것이라 추정하며 설명합니다.

어쨌든 이 서간의 저자는 첫째 하느님은 빛이시며(1요한 1,5-2,28), 둘째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고(1요한 2,29-4,6), 셋째 하느님은 사랑(1요한 4,7-5,12)이심을 선언하며 기도 당부 등 마무리(1요한 5,13-21)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오늘 제2독서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세 번째 대목입니다.

2. 발췌 구절 묵상과 기도

1)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 자녀도 사랑합니다. ...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1-3절).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바로 하느님 사랑의 뿌리이며 기초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들이기에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한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딸임을 깨닫고 확인함이 참 신앙이며 사랑입니다. 소박한 표현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우리는 모두 되새기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의 실천이란 바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웃과 공동체 선익을 위해 사익을 희생하고 양보하는 헌신적 자세가 바로 사랑의 핵심입니다. 사랑의 계명, 주님께서 주시는 명에는 결코 힘겹거나 무겁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책무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사랑, 은총의 신비를 깨닫고 실천을 다짐합니다.

2)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4-5절).

사랑의 짐과 책무가 결코 무겁지 않은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하는 신앙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능가하기 마련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로마 8,32)라는 바오로 사도의 확신을 되새깁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이러한 확신과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금요일 십자가 현양기도와 경배에서 이를 장엄하게 확인하고 전 존재를 걸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존재 이유와 근거가 바로 예수님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어야 합니다.

3) 그분께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만이 아니라 피로써 ...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이십니다^(6절).

물과 피, 성령과 진리 이 네 단어를 깊이 묵상합니다. 물로 씻는 세례의 신비, 피의 제사인 십자가 신비와 순교자들의 증언 그리고 위로자이시며 보호자, 인도자이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진리를 확인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신앙인이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복 음 [요한 20,19-31]

¹⁹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²⁰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²¹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²²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²³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²⁴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²⁵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²⁶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로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²⁷그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뚫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²⁸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²⁹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³⁰예수님께서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³¹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 문맥과 주제

4복음 중 요한 복음은 90년대 최후기 작품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공관복음이 놓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 사회가 대표적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20장 오늘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요한계 다른 제자가 21장을 첨부해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사회를 더욱 실감있게 증언하고 보충하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 20장은 마리아 막달레나의 빈 무덤 확인, 막달레나에게 발현하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의 복음 말씀 곧 제자들에게 발현하신 예수님, 토마스의 신앙고백, 복음서 집필 목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사도들이 모인 날을 “주간

첫날”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간 첫날은 안식일 다음날 곧 오늘
의 주일을 말합니다. 90년대 전후 초기교회 공동체가 늘 주일에 모여
성찬례를 거행했다는 증언이기도 합니다.

주간 첫날 저녁에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문을 잠가놓고 있
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체험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평화의 축복과 함께 성령을 보장해 주
셨습니다. 은총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주일 미사 때마다 체험하고 확인
하는 성령 체험과 평화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날 토마스 사도는 결석했습니다. 주일 미사에 결한 셈입니
다. 그런데 하필 그날 예수님께서 발현하셨다니 토마스는 매우 속상했
습니다. 이에 제자들을 향해 펄펄 뛰며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
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당연하고 기능한 일입니다. 그 토마스 사도
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여드레 뒤에 곧 다음 주일에 문이 잠겼는데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가 바로
부활의 결실, 하느님 축복의 총화입니다. 그리고 토마스에게 말씀하십
니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
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는 너무 부
끄러워 죄송한 마음으로 전 존재를 걸고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하
고 예수님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합니다. 기적을 목격한 감격의 순간입
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토마스에게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
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금과옥조와 같
은 신앙고백과 교훈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언제나 눈으로 확인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랑의 체험, 영적 세계, 하느님과의 초월적 관계를 우리 신앙인은 늘 굳게 확신하며 십자가 주님의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2. 발췌 구절 묵상과 기도

1) “주간 첫날 저녁”, “평화가 너희와 함께!”, “성령을 받아라!” (19-22절)
이 세 말마디를 묵상합니다.

“주간 첫날 저녁”: 사도들은 주간 첫날 저녁에 모였습니다. 주일미사는 공동체의 날입니다. 함께 모여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행업을 기리며 내일을 계획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친지들과 함께 모여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 말씀과 행업을 기리며 함께 다짐하고 계획을 공유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핵가족 시대에 각자 바쁘고 일에 쫓기고 있는데 적어도 주일에는 함께 모여 주님께 집중하면서 삶을 종합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축복하시며 첫 번째로 건넨 인사입니다. 평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라는 격언과 같이 평화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이룩한 부활의 결실입니다. 평화는 인류에게 보장된 기쁨과 행복 모든 축복의 총화입니다. 평화는 기도와 헌신, 양보와 희생, 노력과 투신, 무엇보다도 양심에 기초한 정의로운 삶의 보장된 하느님의 축복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평화’를 말씀하신 것은 격려와 위로, 권고와 초대, 무엇보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 부활을 실현하라는 장엄한 명령과 선언이기도 합니다. 평화는 오직 십자가 죽음과 헌신을 통해서 이

룩되는 열매임을 깨닫고 어머니 품속에 안긴 아기의 평화로운 삶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평화를 주소서. 저희 모두 서로 평화롭게 지내도록 이끌어주소서. 아멘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영광스러운 부활 그리고 성령강림, 구원사의 이 모든 하느님 사건은 사실 시공을 초월한 동시적 사건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공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마태오 복음사가가 기록하고 고백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순간 죽은 이들이 살아나고 성전 휘장이 확 찢어졌습니다(마태 27,51-53). 하느님의 신비가 온 세상에 드러났다는 상징적 표현과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아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성령강림 사건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성령의 작용, 성령의 행업입니다. 부활 신앙에서 우리는 교과서적 설명을 뛰어넘어 언제나 하느님을 관통하고 하느님과 직통하는 성령 체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거수일투족, 숨쉬는 나의 행업이 바로 하느님 성령의 요체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마음에 모시고 집중하며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을 체험케 해주소서. 아멘.

2)“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28절)

토마스 사도의 아름다운 장엄한 신앙고백입니다. 미사 중 거양성체 때마다 우리는 토마스 사도의 이 신앙고백을 반복해 올리며 정성껏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작을 높이 올릴 때에는 “주님의 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소서!”, “주님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십자가와 순교자적 삶을 지향합니다!”

“도와주소세!”라는 등 각자 나름대로 화살기도를 바치기도 합니다.

예수님 상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 숙여 자신의 불신을 고백하고 사랑과 함께 전 존재를 걸고 고백한 토마스 사도의 이 기도를 늘 정성껏 반복해 올립니다.

신앙고백은 불의한 정치, 불의한 독재에 대한 항거와 거부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토마스 사도의 이 신앙고백을 오늘날 여성 신학자들은 공동체적 관점 곧 사회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요한복음을 집필한 90년대의 로마 황제는 도미씨아누스(재위 79-96년)로 그는 백성들이 자신의 동상을 세우고 그 자신이 ‘신이며 주(Deus et Dominus)’라고 고백하고 그 앞에서 절하고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치도록 명했습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삶을 유지했지만 뜻있는 소수의 신앙인들은 이 우상 예식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초기교회를 지킨 장엄한 순교자들입니다. 요한묵시록의 저자 장로가 바로 이때 유배 중에 있었던 분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때에 복음사가는 토마스 사도의 신앙고백을 통해 도미씨아누스를 거부한 정치적 선언, 곧 그 황제가 결코 우리의 신(神)이며 주(主)일 수 없다는 뜻으로 이 고백을 수록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느님이시라는 장엄한 신앙고백을 토마스 입을 빌려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황제에 대한 우상숭배에 대한 거부가 참으로 참된 신앙고백입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 신앙고백에 담긴 큰 정치적 의미를 확신하면서 우리는 오늘날 모두 천공의 말에 예속된 윤석열 정치집단을 거부해야 할 신앙적, 신학적, 성서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주일 미사 때마다 장엄하게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깊은 뜻을 깨닫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순교자들의 피로 쓴 신앙고백서입니다. 천공에게 예속된 윤석열 미신 일당을 주님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송두리째 해체해 주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함세웅〉

부활 제3주일

제1독서 [사도 3,13-15,17-19]

그 무렵 베드로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¹³“여러분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정한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이사악의 하느님과 야곱의 하느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¹⁴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배척하고 살인자를 풀어 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¹⁵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¹⁷이제,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타의로 그렇게 하였음을 압니다. ¹⁸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메시아께서 고난을 겪으시리라고 예고하신 것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¹⁹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오늘 1독서의 본문은 사도행전의 초반부이다. 성령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로 첫 신자 공동체가 생겨나고 사도들의 활동이

시작된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불구자를 일으킨 본문에서 이어진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으로 늘 성전 문 앞에서 자선을 청하던 이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를 알아 보며 경악한다. 군중들은 이 사건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게 되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된다.

베드로는 이 기적이 자신들의 힘이나 신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된 것임을 분명히 하며, 그들이 배척한 예수님께서 본래 어떤 분이셨는지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불구자를 일으킨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음을 증거하는 작은 징표일 뿐이다. 베드로는 분명히 증언한다.

“하느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15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셨고 수난을 겪으셨으며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이 군중들 앞에서 있다.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이 역할은 오늘 부활 제3주일의 주된 주제가 될 것이다.

백성들도 지도자들도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모든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이미 선언되었던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한다. 사실 스승의 수난과 죽음은 제자들로서도 이해하기 힘든 난제였을 것이다. 그들이 기다리고 믿었던 이는 이 백성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해줄 메시아였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런 메시아가 자신들을 고통에서 해방해주기는커녕 그 자신마저 억울하게 수난당하고 죽음을 맞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다. 더구나 전통적으로

고통받아 죽임을 당하는 것은 죄인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겼기에 제자들의 혼란은 더 커졌을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구약의 예언들, 특별히 이사야 예언서 안에서 스승의 수난과 죽음에 대한 난제를 해결했을 것이다. 이는 이미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며 그것이 자신의 스승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만한 예언은 제2이사야 예언서에 있는 ‘주님의 종의 노래’다. 네 개의 신탁으로 이루어진 ‘주님의 종의 노래’(첫째: 42,1-9; 둘째: 49,1-7; 셋째 50,4-9; 넷째 52,13-53,12)에는 백성들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짚어준 ‘주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 노래는 고통이 언제나 고통당하는 사람 자신의 죄의 결과인 것은 아니며 무죄한 이의 고통이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죄인과 고통에 대한 도식을 뒤집어 놓는다. 결국 스승이 겪었던 고통은 별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를 짚어주는 대속이었던 것이다. 그분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이러한 고통을 순종으로 받아들이셨음을 제자들은 깨닫게 된다.

베드로는 마침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느님께서 모든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메시아께서 고난을 겪으시리라고 예고하신 것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18절).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이 주님의 부활로써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베드로는 많은 이들 앞에서 증언한다.

베드로의 설교 안에서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부 하느님의 섭리와 그러한 아버지의 뜻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시는 예수의 순종을 바라보게 된다. 우리가 모두 예수의 순종을 닮아 아버지의 뜻

을 받아들여 살아갈 때, 이 땅도 하느님의 나라로 물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제2이사야는 자신의 예언을 다음과 같이 끝맺었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이사 55,10-11).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당신의 말씀이 성취되었듯,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 안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제2독서 [1요한 2,1-51]

¹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²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³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⁴“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⁵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 사랑이 완성됩니다.

2독서의 본문인 요한 1서는 요한 사도의 제자들 혹은 그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가 집필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서간이다. 하지만 이 편지에는 수신인도, 발신인도, 인사조차 없어 일상적인 편지라기보다는 초대교회의 신자들을 가르치고 타이르는 교서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이때에는 아직 교회 안에서 하느님께 대한 교리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신자들이 여러 거짓 예언자들의 가르침에 쉽게 넘어가곤 했었다. 물론 그 역시 유한한 인간의 이성으로 하느님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은 교회의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었기에 신약의 여러 서간에서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들이 다수 발견된다.

요한 1서는 그중에서도 영지주의 이단에 대항하기 위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다. 본문을 보면 유독 ‘안다’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유에서다. 영지주의란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는 사상이다. 영적 체험, 영적인 앎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이러한 앎을 얻으면 그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앎이란 구원의 필요충분조건이었다. 그래서 이들에겐 믿음보다도 실천보다도 지식이 중요했기에, 영적 지식만 있다면 구원에 대해 하느님께 대한 신앙이나 사랑의 실천 등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사랑의 행위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영지주의에서는 예수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처럼 깨달음의 길을 제시해 주는 위대한 스승으로 바라본다. 그들에게 구원의 조건은 영적 지식이기 때문에 우

리 인간에게는 무지를 일깨워 줄 스승이 필요할 뿐,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어린 양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어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해 설명하면서 영적 존재인 그리스도가 세례 때에 인간 예수에게 내려왔다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준 후, 십자가 처형 전에 다시 빠져나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의 구원에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나 죽음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가 예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2절)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사실 영지주의는 종교 그 자체는 아니다. 사색적이고 추상적인 사상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 사상들이 그리스도교에 들어오면서 영지주의적인 이단들을 만들어냈던 것이 문제였다. 얇은 자체만을 목적으로 두었기에 그들이 추구했던 삶은 복음적인 삶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성적인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다.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 그것이 얇은 삶의 목적인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려 한다. 그러나 그러한 지향을 갖지 않는 이들에게 얇이란 그저 무의미한 지식일 뿐이다. 복음을 보라. 악령은 이렇게 말한다.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루카 4,34).

악령도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알았다’. 그러나 ‘관계’가 없는 얇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입니까?’라고 외치는 얌이라면 그것은 의미 없는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와 관계 맺고 사랑을 나누기 위함이며,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삶으로 이 세상에 사랑이신 하느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이다.

복 음 [루카 24,35-48]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³⁵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³⁶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³⁷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³⁸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이느냐? ³⁹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⁴⁰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 주셨다. ⁴¹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⁴²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⁴³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⁴⁴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

다.”⁴⁵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⁴⁶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⁴⁷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⁴⁸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오늘 복음 내용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에서 이어지고 있다. 두 개의 독립적인 이야기를 붙여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체험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또 다른 부활 체험을 하게 되는 이러한 구성은 그 자체로, 믿는 이들이 주님께 대한 체험을 나눌 때 그 안에서 또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체험은 다른 곳에서도 반복되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에서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나 빵을 떼어 주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게 된다. 이는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빵을 나눌 때 계속해서 그들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알아보고 체험하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결코 환시나 착시가 아니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드시피 살과 뼈가 있다”라는 말씀, 또한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그들 앞에서 잡수시는 모습은 그들이 체험한 주님이 상상이나 환시가 아니요, 유령을 본 것도 아님을 증언한다. 그분은 참으로 부활하셨으며, 그분이 바로 우리가 체험하게 될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이미 성경에서 미리 예언된 것으로, 주님께서 고난을 겪고 사

홀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심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느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그러기에 그것은 하느님의 뜻에 의한 필연적인 사건이다. 루카는 모든 부활 사화 이야기에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예언되었던 것임을 언급하면서 빈 무덤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고, 엠마오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건들이 이미 율법과 예언서의 기록들을 통해 전해졌음을 알리며 믿는 이들을 다시 성경으로 초대한다.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45절).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그랬듯 이 본문에서도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는 요한 복음에 의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도 하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요한 14,26).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에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요한 16,13).

3년간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며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성령, 곧 진리의 영께서 그들에게 오시어 그들을 깨닫게 하신다. 말씀이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그렇게 성령 안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깨닫는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복음사가는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 모든 체험은 혼자만 간직하려 머물 것이 아니라 끊임없

이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 사명임을 복음은 이야기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빈 무덤이 이야기해 주듯, 부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마태오 복음은 경비병들이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매수된 사건을 알리며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시켰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주님의 부활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이들만이 알고 있다. 자신이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주님의 부활을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러기에 주님을 목격한 그들만이 부활의 증거요, 증인이다. 그들은 그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주님의 시체를 훔쳐 가 그분이 부활하셨다며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런 사기극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들의 순교는 증거이며, 그들은 순교로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어 ‘martus’은 증인이라는 의미와 함께 순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순교를 통해 스스로 많은 이들에게 부활의 증거가 되고, 그것을 본 많은 이들이 그 증거를 통해 신앙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루카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하나로 이어져 있는 책이다. 오늘 본문인 루카 복음의 마지막 장은 이제 사도행전으로 연결되어,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순교로서 부활을 증거한 사도들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그들의 신앙을 물려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것인가? 오늘 우리의 묵상 주제다. ❶

〈정남진〉

부활 제4주일

(성소주일)

제1독서 [사도 4,8-12]

그 무렵 ⁸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⁹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착한 일한 사실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문제로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¹⁰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¹¹이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¹²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성경 본문 깊게 읽기

사도행전 4장은 초기교회 공동체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으로 가득 찬 사도들의 영적인 변모 모습을 전해준다. 사도들이 백성

을 가르치면서 예수를 내세워 죽은 이들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긴 유대인 공동체 지도자들이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약점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신하고 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전하며 믿음을 굳게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의 용기와 도전에 대한 보상을 선포하고 있다.

성령으로 가득 차^(8절)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단죄하는 반면에, 성령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을 단죄한다. 지도자들은 학식과 권위를 내세워 자기들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자처했다. 이러한 와중에서 베드로는 병든 사람을 고쳐준 일로 체포되고 심문받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를 지적한다. 당시 수석 사제들은 대부분 죽은 이들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가이들이었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의 힘으로 살아나신 분들을 치유하며, 구원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그의 사도적 활동이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9-10절).

베드로와 요한이 이룬 이적을 통해 사람들을 놀라게 한 후, 교회의 일치와 창조적 봉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은 교회 구성원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소유와 재산을 나누며 단결된 공동체로 살아간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와 구원의 권능을 보여준다. 이는 교회가 신앙의 기초를 닦고,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서로 돌보고, 주변 사회를 향해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원칙이 된다.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11절)

이 구절은 시편 118,22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23절)로 이어진다. 루카 복음 20,17에 병행하는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거부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구원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며, 또한 하느님의 나라는 때로는 인간들의 기대와 예상과는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12절)

‘예수’라는 이름은 ‘하느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느님의 구원을 우리 눈높이에서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Immanuel}’ 이시다. 이사야 예언자는 임마누엘이신 그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다”^(이사 9.5).

묵상

십자가의 길에서 도망치고 스승을 배반하고 다락에 숨어서 떨고 있던 제자들의 변화는 놀랍기만 하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나약하고 비겁했던 제자들이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기적과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전하며 우리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에 동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삶에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에 결정적인 변화와 힘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믿음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고 절망 속에 주저앉지 않고 빛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

제2독서 [1요한 3,1-2]

사랑하는 여러분, ¹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²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본문 깊게 읽기 - 묵상

요한 복음서와 깊은 관계에 있는 요한의 첫째 서간은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2절)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임을 상기시킨다. 신학생 때만 해도 ‘사제는 제2의 그리스도 SACERDOS ALTER CHRISTUS’가 되어야 한다고 배웠다. 오늘 말씀 앞에서, 사제가 되어 살아온 지난 삶을 돌아보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는 내 믿음살이에 대한 회초리처럼 느껴진다.

신앙의 역사에서 “그분처럼 되리라”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명은 퇴색하거나 축소되어 왔다. 세상은 그리스도교의 가치들과 인류에 대한 공헌을 직접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을 속박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교를 바라보았다. 서구적 실천주의와 그리스도교 신앙에 실망한 나머지 동양적 구도 방법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드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뉴에이지나 신흥종교의 발흥은 방향성을 상실한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도전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리스도교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신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제나 수도자 중에도 보편적 사랑을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곱해한 나머지 감상적이고 맹목적인 신심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느님처럼 된다는 것은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누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분과 함께 하느님 안에 머무른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고통의 삶을 짊어지는 이들은 장차 그분의 모습처럼 영광스럽게 변모할 것이다(마르 9장, 콜로 3,4 참조). 그때 하느님의 자녀가 중심이 되어 모든 피조물은 궁극의 목표인 새 창조에 이르게 된다.

요한 1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진정 우리는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본향인 진리로 되돌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느님의 아드님 안에서 영원한 진리를 알게 될 때 참된 사랑의 길을 걸으며 하느님 아버지와의 친교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신앙의 진실이다. 하지만 현실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른다고 자처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빛과 사랑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일단의 기준과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새로 태어난 자녀들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앎을 쇄신한다. ‘하느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야말로 그분을 가장 잘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존재 및 행동 방식, 그리고 그분의 사명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해야 한다.

복 음 [요한 10,11-18]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¹¹“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¹²삷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 떼를 흩어 버린다. ¹³그는 삷꾼이어서 양들에게 관심

이 없기 때문이다. ¹⁴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¹⁵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¹⁶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이다. ¹⁷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¹⁸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성경 본문 깊게 읽기

요한복음 10장은 “겨울, 성전 봉헌 축제”(요한 10,22)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예수께서 죄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바리사이들을 비롯한 유다인들의 지도층과 별인 예수의 신원에 대한 마지막 논쟁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예수께서 바리사이들이 죄 중에 있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하느님을 알고 있으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의 말씀과 행적을 보면서도 올바르게 식별하지 못하고, 정작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었다(요한 9,40-41 참조).

그들의 모습은 하느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면서도 눈앞에 와 계신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들려주신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는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를 가

르쳐 준다.

나는 착한 목자다^(11절)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을 “착한 목자ὁ ποιμὴν ὁ καλός”라고 말씀하신다. ‘착한’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칼로스καλός는 우리 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 ‘착한’이라는 단어는 ‘좋다’, ‘유용하다’라는 뜻이지만, ‘신에게서 왔다, 신적이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즉, 완전한 진선미를 표현하는 말로 사용된다. 예수께서 자신을 ‘착한 목자’라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는 이 목자를 통해서 하느님을 본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당신이 하시는 일을 통해 하느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송봉모의 〈요한복음 산책 3〉에서는 이 구절의 정확한 번역을 착한 목자 앞에 정관사가 붙어있어서 ‘나는 그 착한 목자다’라고 소개한다. 당신 자신이 세상의 착한 목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착한 목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다^(12절).

‘칼로스’라는 단어는 자신의 직분을 훌륭하고 탁월하게 수행했을 때 사용하기도 한다. 예수께서는 착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심으로써 목자의 사명과 책임을 온전히 다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오늘 본문에서만 예수께서는 당신이 착한 목자이기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다”고 네 번이나 말씀하신다^(11절, 15절, 17절, 18절). 목자가 해야 할 일은 양을 지키는 것이다. 목숨을 바쳐서 양을 지키는 것이 목자의 온전한 헌신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생각하지만, 예수께서는 누구를 위해 죽을 것인가를 생각한다.

참된 인간의 길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가를 알고, 그 죽음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삶이다(체 게바라, <나의 삶>). 예수께서는 그 길을 알고 계시며 제자들에게 그 죽음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것이다.

샅꾼(12-13절)

예수께서는 ‘착한 목자’와 비교 개념으로 ‘샅꾼’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이것은 당시의 유목 사회에서 양의 주인으로부터 일정한 품삯을 받고 양을 맡아 돌보는 샅꾼과 자신의 양을 직접 돌보는 목자의 차이를 통해 양들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참된 목자가 당신이심을 강조하신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목자와 비교되는 샅꾼의 특징은 이렇다.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양들에게 관심이 없다.

베드로 사도는 하느님의 양들을 돌보는 사목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느님의 양 떼를 잘 치십시오. 그들을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고 열성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해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 떼의 모범이 되십시오”(1베 드 5,2-3).

베드로 사도의 권고에 비추어 착한 목자와 같은 사목자는,

-기꺼운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고

-부정한 이익을 탐내지 않고 열성으로 일하며

-양들을 지배하려 들지 않고
-양 떼의 모범이 된다.

반면, 샅꾼과 같은 사목자는,
-역지로 양들을 돌보고
-부정한 이익을 탐내며
-양들을 지배하려 들고
-양 떼에게 악한 표양을 보인다.

예수께서는 착한 목자와 샅꾼의 비교를 통해서 하느님의 백성을 잘못 인도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독선을 지적하시며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는’(마태 9.36) 가련한 하느님의 양 떼를 위한 당신의 소명을 분명히 밝히신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14절).

목자와 양이 서로 안다는 것은 목자와 양들의 관계에서 전제되는 서로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다. 요한 복음서에서 ‘믿음^{pistis}’은 이것을 뜻하는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한다. ‘예수를 받아들이다’, ‘예수께 오다’, ‘그를 찾다’,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듣다’, ‘말씀을 간직하다’, ‘그분 안에 머물다’ 등이다. 요한 복음에서 이러한 다양한 표현들을 ‘믿는다’라는 표현과 병행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앙의 대상이 오직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구체적인 실존 안에 함께 하는 것임을 모든 믿는 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양들을 알고, 양들이 예수를 안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 그노시스^{γνῶσις}는 성경에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

할 때 사용되는 ‘알다’라는 단어 **γινωσκω**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얇은 인간의 의식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이 아니다. 볼트만은, 본문에서 사용된 양이 목자를 안다는 그노시스(Gnosis)는 실존적 각성(Seinsverständnis, Existenzverständnis)과 유사하다고 한다. ‘믿는다’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나의 실존을 통해 깨닫는 얇은 것이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18절).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을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유일한 착한 목자로서 당신의 양들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한다. 그것은 온 세상의 양들이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되기 위해서이다(16-17절).

예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아버지 하느님의 명령이라고 선언하신다. 이 선언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유대 민족의 목자들은 자기들이 국가적 공지를 드높이고, ‘상류’ 계급들의 특권들을 보존하며, 이방인들을 차별함으로써 국가적 일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반해 예수께서는 당신 백성을 당신 곁에 모아들이시어 당신의 참된 존재를 체험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일치시키실 것이다. 그분께 속한 모든 양은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믿게 될 것이다.

묵상

부르심과 응답

요한 복음에서 ‘믿는다’는 것은 오시는 예수, 가르치고 일하며 만민을 당신 안으로 부르시는 예수, 이 세상에서 떠나가시지만 당신 제자

들 안에 남아 머물러 계신 예수,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에게 영광을 드리는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신앙이란 예수와 만나고, 그분을 찾아오고, 말씀을 듣고 알아들으며, 그분을 받아들이는 일은 사도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계속 현존하시는 예수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요구되는 것이다.

믿음살이는 부르심과 응답의 여정이다. 성경은 하느님의 부르심과 이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응답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동기와 이에 응답하는 인간의 모습은 다양하다. 구원의 여정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소^{Vocation}’가 특별한 신분 - 사제, 수도자 - 의 일로만 알아듣게 된 것은 교회가 제도화되고 폐쇄적인 신앙에 머물며 생긴 편협한 신앙관의 결과이기도 하다.

하느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이 성소의 출발점이라면 착한 목자와 양들의 관계는 성소의 열매이다. 사목 현장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양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목자가 함께하는 곳이다. 그것이 이리 떼 가운데로 양들을 보내시는(루카 10,3) 예수의 마음이라.

“양 냄새 나는 목자가 되십시오!”

프란치스코 교종은 자주 사제들에게 “신자들을 기쁘게 하려면 사제들은 무엇보다 신자들의 삶에 함께하고 그들의 고통을 짊어져야 한다” 라면서 “양 냄새 나는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신다. 교종의 이 말씀에 대해 어느 분이 우스갯소리로 말했다고 한다. “목자에게서 양고기 냄새가 나면 안 되겠지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착한 목자가 아니라 양고기를 즐기는 샐콘들을 두고 하는 말이겠지만 나에게도 경종

이 되었다.

교종은 사제들이 착한 목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며 말씀하신다. “폐쇄된 작은 집단들을 만들려는 유혹, 스스로 고립되려는 유혹,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헐뜯하려는 유혹, 남보다 우월하고, 남보다 더 똑똑하다고 믿으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헐뜯은 폐쇄된 집단들의 습관이고, 끈대가 되는 신부들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온 나라가 총선의 결과를 두고 혼란스럽다.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우리의 삶을 붕괴시키고 사회와 나라를 공포와 위기의 나락으로 몰아넣었다.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들처럼 위험하고 가엾은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회와 국가의 운명을 맡을 사람들을 신중하고 지혜롭게 선택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을 키워내는 일은 착한 목자가 교회와 세상을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다. 사나운 짐승들이 양 떼를 공격할 때 먼저 숨고 도망치는 싹꾼이 아니라, 앞서서 싸울 줄 알고 다친 양을 보살피는 일은 착한 목자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다.

‘성소주일’이요 ‘착한 목자 주일’을 지내며,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청하면서(마태 9,37 루카 10,2) 예수처럼 착한 목자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

기도

주 예수님,

당신은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착한 목자이십니다.

제가 항상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지혜로운 이끄심에 온전히 따르게 하소서. 제가 샅쨌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착한 목자이신 당신을 닮아가게 하소서. 아멘

〈김영수〉

〈성경 본문 깊게 읽기〉 참고 문헌

- 〈주석성경〉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 〈주석판 성요셉 공동체 성경Saint Joseph Community Bible Catholic Pastoral Edition〉 성 요셉 출판사
- 〈교부들의 성경주해〉 분도출판사
- 〈요한복음산책 3. 생명의 빛이 가슴 가득히〉, 송봉모, 바오로딸
- 〈성서묵상 4. 요한복음〉, C.M. 마르티니/성염 역, 성바오로출판사
- [Daily Scripture] Servants of the Word. www.dailyscripture.net
- [Lectio Divina-Carmelite] Carmelite Communicatio <https://carmelites.org.au/lectiodivina>

부활 제5주일

제1독서 [사도 9,26-31]

그 무렵 ²⁶사울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지만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가 제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²⁷그러나 바르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그가 길에서 주님을 뵈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²⁸그리하여 사울은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다. ²⁹그리고 그리스계 유대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사울을 없애 버리려고 베풀고 있었다. ³⁰형제들은 그것을 알고 그를 카이사리아로 데리고 내려가 다시 타르수스로 보냈다. ³¹이제 교회는 유다와 갈릴래아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평화를 누리며 굳건히 세워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성령의 격려를 받아 그 수가 늘어났다.

오늘의 제1독서인 사도 9,26-31의 본문은 사도행전 전체의 구성 안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의 선교 부분인 사도 8-12장의 문맥 안에 위치한다. 특히 사도 9장의 문맥은 사울의 회심 사건인 사도 9,1-19ㄱ,

다마스쿠스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울에 관한 사도 9,19-22, 사울의 피신 이야기인 사도 9,23-25,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울에 대한 내용인 우리 본문 사도 9,26-31로 이루어진다.

우리 본문의 26절에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는 그곳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친교를 나누려 했지만,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사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극적인 회심을 하기 이전의 사울은 열성적인 바리사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거의 행적 때문에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을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였다. 27절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예루살렘 공동체와 사울 사이를 연결한 인물은 바르나바였다. 그는 사도 4,36에서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인으로, 사도들에게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얻은 요셉”으로 소개된다. 바르나바의 행동은 다마스쿠스 공동체와 사울 사이를 연결한 하나니아스의 역할과 유사하다. 사도행전의 본문에 따르면, 사울을 찾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다마스쿠스의 제자 하나니아스는 이렇게 말한다. “주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하였는지 제가 많은 이들에게서 들었습니다”(사도 9,13).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니아스에게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인물, 경계해야 할 위험한 인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 이랬던 하나니아스가 마침내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게 된다. “사울 형제, 당신이 다시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주님께서, 곧 당신이 이리 오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사도 9,17). 하나니아스는 지금, 자기를 박해하러 오고 있던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하나니아스와

사울이 형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 두 사람이 형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같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을 만나고, 같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서로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왔던 두 사람이 이제 한 형제가 된 것이다.

우리 본문의 27절에는 바르나바가 사울에 대한 증언이 제시된다. 곧 바르나바는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과 회심한 사울이 담대히 설교한 사실을 증언한다. 그래서 마침내 사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친교를 나누면서, 그곳의 그리스계 유대인들과도 토론한다. 그러나 사울에 대한 위협은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의 30절에서는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사울을 카이사리아로 데리고 갔고 다시 타르수스로 보냈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31절은 우리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교회는 유다, 갈릴래아, 사마리아 지방에서 평화를 누리며 그 수가 늘어났다. 이것은 당시 교회의 영적이고 양적인 성장을 의미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위에 굳건히 세워진 교회는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갔다. 그리고 교회의 수적인 성장은 성령의 격려에 의한 것이다.

부활대축일부터 읽기 시작한 미사 전례의 사도행전 독서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와 만남이 제자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발견하게 된다. “담대히”라는 말은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들의 모습과 활동을 표현한다. ‘담대함’을 뜻하는 그리스어 파레스이아는 자신, 자신감, 확신의 의미를 가진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담대히’라는 말은 ‘담력이 큼, 겁이 없고 용

기가 많음'을 뜻하는 '담대'의 부사형이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강림 사건 후인 사도 2,29에서 “형제, 여러분, 나는 다윗 조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사도 4,13에서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최고 의회에서 증언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또 이들이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놀라워하였다”라고 한다. 마침내 사도행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문장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문장은 로마에서 바오로의 활동에 대한 기록으로 끝난다. “그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히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담대히 활동하는 사도 바오로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와 같이 ‘담대히’라는 표현은 사도행전의 시작에서부터 사도들의 활동을 표현하고, 마침내 책의 마지막 문장에서도 사도 바오로의 활동을 표현하는 것이다. 사도 바오로는 자신이 직접 쓴 서간들에서도 ‘담대히’라는 말을 사용하여 자신의 사도직 활동을 표현한다. “우리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에 아주 담대히 행동합니다”(2코린 3,12).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느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에페 3,12).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살든지 죽든지 나의 이 몸으로 아주 담대히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빌리 1,20).

이와 같이 ‘담대히’라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변화를 표현하는 특징적인 단어이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 이후 두려움에 떨고 겁에 질려 있던 제자들이 담대한 사람들로 변화한 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였기 때문이다. 강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사도들의 담대함이 그러했듯이, 그것은 위로부터의 선물, 곧 성령의 선물이다. 두려움은 우리를 겁쟁이로 만든다. 그것은 실패를 무서워하게 만들고, 새로운 시도를 위한 용기를 잃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를 무사안일, 복지부동, 현실안주 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고 타성에 젖게 만든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아닌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용기와 도전 정신으로 담대히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독서 [1요한 3,18-24]

¹⁸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¹⁹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²⁰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²¹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²²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²³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²⁴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2독서인 1요한 3,18-24의 본문은 요한 1서의 전체 구성 안에서 서간의 본론 중에서 반대자들에 대한 경고와 항구한 신앙에 대한 가르침인 1요한 2,18-3,24의 문맥 안에 위치한다. 특히 우리 본문은 사랑의 실천에 대한 1요한 3,11-24의 후반부를 이룬다.

우리 본문의 18절은 서간의 수신인들을 “자녀 여러분”으로 부른다. 요한 1서에서 “나의 자녀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녀들, 곧 전체 요한계 교회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권고한다. 여기서 사랑은 말과 혀, 곧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실천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면서도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특히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는 위선자이고 거짓말쟁이일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사람들과 힘없고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과 연대하고 그들을 위한 정의에 투신해야 한다. 만일 그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막고 마음을 닫는다면, 우리는 말과 혀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실천적 사랑의 참된 본보기는 예수이시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내놓으신 그 사실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1요한 3,16).

우리 본문의 19절에 따르면,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들은 자신들이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 앞에서 불안이 아니라 마음을 편히 가진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신앙인들의 사명은 진심으로 사랑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21절에서 저자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 사랑을 실천하도록 권고한다. 행동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께 간구하는 것을 그분은 다 들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에게서 모든 것을 받게 된다.

앞선 22절에서 사랑의 실천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한 저자는 이제 23절에서 하느님의 계명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첫째,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둘째,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24절에서 저자는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그분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하느님과 자녀들 사이에서 사랑은 상호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상호 밀접한 관계 안에서 서로가 함께 머무르는 특성이 잘 드러난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서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은 그 안에 머무르신다. 이러한 실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다.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그분 말씀의 육화이시다. 하느님 아버지, 아드님, 성령은 함께 어울려 대화와 소통, 친교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신다. 예수께서는 결코 혼자 행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 성부께서는 예수 안에 머무시면서, 세상에 보내신 아드님을 통하여 몸소 당신의 업적을 이루신다. 예수 자신이 아

버지께 가는 “길”(요한 14.6)로서, 성령 안에서 사람들에게 진리와 친교의 사랑을 전해주신다. 여기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의 친교와 공동 체적 차원이 잘 드러난다.

만일 어떤 이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탐욕의 늪에 빠져 있다면, 그는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 부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참된 부자는 삶이 넉넉한 사람, 즉 고전적인 표현으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참으로 부유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움켜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곧 탐욕의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인품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 변함없는 사랑의 실천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일 것이다. 결국 참된 부자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은 것임을 받아들이고, 그 선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선물로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다.

지난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 미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대한 부요 곁에서 매우 비참한 가난이 소리 없이 자라나고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좀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사회들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순교자들의 모범은 많은 것을 일깨워 줍니다. 이러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들에게 뻗치는 도움의 손길로써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요구하시며, 그렇게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복 음 [요한 15,1-8]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¹“나는 참포도 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다. ²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 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³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⁴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⁵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⁶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 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 버린다. ⁷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⁸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오늘 복음인 요한 15,1-8의 본문은 요한 복음서의 전체 구성에서 후반부에 해당하는 ‘영광의 책’으로 불리는 요한 13,1-20,31의 문맥 안에 위치한다. ‘영광의 책’은 구체적으로 예수의 수난,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요한 13-17장의 문맥은 세족례와 고별 만찬에 관한 13장, 고별사인 14-16장, 고별기도인 17장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우리 본문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고별사의 한 부분이다.

우리 본문의 1절 “나는 참 포도나무다”와 5절 “나는 포도나무다”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정체성을 표현하신다. 요한 복음서에서 “나는 ...이다”의 말씀은 예수의 신적인 정체성을 다양하게 제시한다. 요한 6,35의 “내가 생명의 빵이다.”, 요한 6,51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요한 8,12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 9,5의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 10,7의 “나는 양들의 문이다.”, 요한 10,9의 “나는 문이다.”, 요한 10,11.14의 “나는 착한 목자다.”, 요한 11,25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본문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포도나무와 가지이다. 1절에서 당신을 참포도나무로 표현하신 예수께서는 하느님을 포도나무를 심으신 포도원의 농부로 설명하신다. 2절에 따르면, 농부이신 하느님은 참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붙어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쳐 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미지는 예수와 제자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 이 관계는 상호 일치, 상호 머무름, 열매 맺음을 표현한다. 요한 복음서에서 ‘머무르다’는 하느님과 외아드님이신 예수 사이의 관계, 예수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표현한다. 우리 본문에서 ‘머무르다’ 동사는 예수와 제자들 사이의 친밀함을 제시한다. 예수 안에 머무르고 열매를 맺는 이들은 그분과 일치는 참된 제자이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머무름’은 상호 인격적인 친밀한 내적 관계로서의 친교를 의미한다.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안에 머무르면서 그분으로부터 양분을 받고, 다른 지체들에게도 양분을 전달하는 사랑의 실천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들이 포도나무에 머

무르는 것은 일상 안에서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머무르는 것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오늘 복음의 예수 말씀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둘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가 다 쳐낸다. 셋째, 가지가 포도나무에 머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넷째, 농부는 열매를 맺는 가지를 모두 깨끗이 손질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먼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와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복음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럴 경우, 설령 우리의 활동들이 어떤 성과를 내는 듯이 보일지라도, 그 성과는 곧 사라질 거품에 불과하다. 비록 우리가 인간적인 잔재주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낼지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우리의 모든 사도직 활동이 살아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한편,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지 그것이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에 의해 잘리고 버려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무르고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

이 “열매를 맺는 것”에 더 우선한다는 것에 주목해야겠다. 우리가 예수
 의 제자인 것은 우선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 곧 그분과 함께 있음에
 서 드러난다. 우리의 삶이 예수와 관계있는 삶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그분과의 친교 안에서 머무를 때,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사는 것이
 다. 즉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 인생길의 등불로 삼고, 그분 삶의 본보기
 를 우리 삶의 지표로 삼아 그분의 가치와 정신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을 그분과 함께 걷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수를 우리 인생길의 동반자로 모시는 것이다. 사실 우
 리의 인생길에는 기쁨과 환희의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실패와 좌
 절에 우리의 다리가 꺾이기도 하고, 갈 길을 잃어 이리저리 헤매기도
 한다.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께서 다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일을 계속하게 된다. 예수와 함께 현존하는 하
 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 형성되고 성장하
 는 것을 가로막는 일체의 경향, 사상, 조직, 구조들과 싸워나가야 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 보다 “열매를 맺는 것”을
 더 우선시한다면 우리는 성과주의, 물량주의, 성장주의의 잘못에 빠질
 것이다. “열매를 맺는 것”은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의 자연스러운 결
 과이다. 그분 안에 머무르는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이 충만할 때, 우리
 가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활동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 그분의 생명이 가득할 것이다. 그 충만한 생명은 풍성한 복음적
 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를 더욱 더 다듬고
 손질하여 더욱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도직 활동에서 많은 열매를 내는 것은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에서 생겨나는 결실인 것이다. 그것은 많은 성과를 올려 우리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뒤따르는 것이다. 즉 예수의 대안적 공동체 운동인 하느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그리스도교 신앙은 역사의 예수와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이의 연속성을 발견한다. 우리는 역사의 예수께서 믿고 선포하고 실천하신 것과 그분의 부활 이후 초대교회가 믿고 선포하고 실천한 것 사이에서 연속성을 발견한다.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공동체는 역사의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기억하고, 하느님 나라의 대안적 질서와 가치가 실현되는 공동체 운동을 계속 이어 실천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역사적 예수와 제자들의 공동체와 그리스도교 공동체 사이의 연속성을 발견한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예수의 ‘길’을 기억하고 전승하였으며, 그 ‘길’의 현재적 의미를 해석하여 대안적 공동체의 현재를 비판하고 반성하는 거울로 삼았다. 

〈송창현〉

부활 제6주일

(생명주일)

제1독서 [사도 10,25-26.34-35.44-48]

²⁵베드로가 들어서자 코르넬리우스는 그에게 마주 나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²⁶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³⁴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³⁵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 주십니다.”

⁴⁴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내리셨다. ⁴⁵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신자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⁴⁶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면서 하느님을 찬송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⁴⁷“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⁴⁸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다.

제2독서 [1요한 4,7-10]

⁷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⁸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⁹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¹⁰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

복 음 [요한 15,9-17]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⁹“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¹⁰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¹¹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¹²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¹³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¹⁴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¹⁵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¹⁶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

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¹⁷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 세상은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황무지처럼 미련 없이 떠나야 할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할 귀하고 소중한 터입니다.

그런데 그 귀하고 소중한 이 세상에는 언제나 힘겨움과 고통스러움과 불의와 악이 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곧잘 묻습니다. “만일 질서 있고 선한 세계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삼라만상을 돌보신다면 어째서 악이 존재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가톨릭교회 교리서」 309항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절박하고도 피할 수 없으며, 고통스럽고도 신비한 이 질문에 그 어떤 성급한 대답도 충분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앙 전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다. 창조의 선성(善性), 죄의 비극,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계약, 구원을 위한 당신 아드님의 강생, 성령의 파견, 교회의 형성, 성사의 효력으로써, 그리고 자유로이 응할 수 있는 인간을 행복한 삶에 초대함으로써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고통스러운 사랑이 그 답이다”(필자 강조).

정호승 시인은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는 시에서 “가끔씩 하느님도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느님의 고통스러운 사랑, 하느님께서 흘리시는 눈물! 우리 신앙인조차 흔히 들을 수 있는 표현이 아

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사랑의 새 계명을 가르치십니다. ‘사랑’만큼 많이 입에 올리는 어휘도 없습니다. 또 사랑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모두 같은 것이 아님은 우리 자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생물의 본능에 기초한 사랑이 있습니다. 혹자(或者)는 그것을 사랑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어느 특정한 대상을 향한 열정과 사랑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말 ‘철학’의 서양어는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나 사람을 사랑하지만, 어떤 사람은 돈과 권력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체험하는 헌신의 사랑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 대표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자식이 매력이 있어서, 사랑할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과 피를 나누었기에 무조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는 자신마저 내던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성에 기초한 사랑이든, 특정한 대상을 향한 열정이든, 조건 없이 헌신하는 사랑이든, 이런 사랑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체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은 앞의 사랑들과 그 내용을 달리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제자들을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로 삼으시며, 당신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서 어려웠을 때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도 제자였으며,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그러니까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을 두고 모두 달아난 이들도 제자들이었으며,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잡아챈 이도 제자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아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친구로 삼으셨고, 게다가 그 형편없는 친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의 죽음마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은 그러니까 ‘형편없는 이를 친구로 삼고, 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2독서는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외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삼으시는 하느님의 사랑은 차라리 억울함이라 함이 적절합니다. 형편없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을 배반하고 버린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억울하며 고통스럽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할 사랑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 제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시며, 당신 사랑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1독서 말씀처럼 “하느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생활이야말로 그분 사랑에의 초대에 응하는 태도입니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생활은 경신례(敬神禮)와 신앙고백으로 표현됩니다.

의로운 생활은 예수님 고통스러운 사랑의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처럼 ‘형편없는 이를 친구로 삼고, 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으로, 어떤 조건에서도,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도, 그 형편없는 사람과 운명을 공유하라는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 교회, 곧 이 땅의 하느님 백성이 ‘가난한 이를 위한 가난한 교회[the Poor Church for the Poor!]'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랑의 행위, 자비의 행위를 통하여 인간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자기 이웃의 실재적이고 절박한 필요에 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 이웃이 가난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를 구성하고 조직하고자 애쓰는 사랑의 행위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필요하다”(『간추린 사회교리』, 208항).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고통스러운 사랑’에 용감하게 응답하게 하소서. 아멘.❀

〈박동호〉

주님승천대축일

(홍보주일)

복 음 [마르 16,15-20ㄴ]

그때에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¹⁵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¹⁶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¹⁷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¹⁸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¹⁹주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²⁰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19세기 후반, ‘이출전설’(Zwei-Quellen-Theorie)(二出典說)의 연구 이후 공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마르코 복음은 전통적으로 교회 내에서 소아시아 지방 히에라폴리스의 주교 파피아스(Papias of Hierapolis)(2세기)의 보고에서부터 그 저자에 대한 증언이 발견된다. 이후

교회는 그 오랜 전통 안에서 사도행전 12장 이후 등장하는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과 파피아스의 증언에 따르는 마르코를 동일시해왔다. 그가 팔레스타나의 지리를 잘 모르고, 바오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르코 복음의 친저성을 부인하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오로의 첫 번째, 두 번째 선교 여행(사도 13, 15장)과 바오로 서간의 여러 증언(콜로 4,10; 2티모 4,11; 필레 24), 그리고 베드로 서간(1베드 5,13)에서의 언급 등을 토대로 바오로의 협조자이자 베드로의 통역이었던 마르코가 이 두 번째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전승은 교회 내에서 확고했다.

마르코 복음의 문체가 고급 그리스어라기보다 대중적인 문체들을 사용했다는 점, ‘렘톤 두 낚’을 ‘콰드란스 한 낚’이라고 설명한 것처럼(마르 12,42) 로마식 표현에 익숙했다는 점,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자주 그리스어로 번역해주고 유다의 전통에 대한 설명이 있다는 점, 구약의 인용이 그리스어 번역본인 칠십인역^{LXX}에 가깝다는 점, 그리고 유다 지역의 지리적 설명에 서투르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학자들은 복음서가 유다계와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혼합된, 로마 현지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위해 쓰였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또한 유다 전통, 로마 제국주의와 얽힌 마르코 복음서의 신학적인 관심과 두 차례(또는 세 차례)에 걸친 유다-로마 전쟁과의 연관성으로 미루어 볼 때, 마르코 복음서의 집필 시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70년을 전후로 추측한다.

마르코 복음 16장은 복음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결론, 즉 끝맺음 부분에 속한다. 마르 1장의 배경이 광야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마르 16장의 배경은 무덤이다. 두 장소 모두 삶과 죽음이 넘나들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다.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마련한 길(마르 1,3)을 통해 오셔서, 이제 무덤을 거쳐 갈릴래아로 가신다(마르 16,7).

신약성경의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사본들, 즉 시나이 사본과 바티칸 사본과 같은 고대의 수사본들은 대부분 마르 16장 8절에서 복음서를 끝맺는다. 마르 16장 9-20ㄱ절의 ‘긴 끝맺음’과 이어지는 20ㄴ절의 ‘짧은 끝맺음’은 복음서의 마무리 부분에 있어 본래의 결말이 소실 되었을 가능성과 더불어, 후대 수사본들의 작성 과정 중에 첨가되어 편집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교회는 16세기 트렐트공의회(1545-1563년)에서 이 대목을 성경의 일부로 선언하였다.

오늘 주님승천대축일을 맞아 우리가 들은 복음은 이와 같이 마르코 복음의 ‘긴 끝맺음’에 속하는 부분으로써,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시어 (14절에서 제자들의 불신에 대한 질책 이후) 복음 선포의 사명을 부여하시고(15절), 믿는 이들에게 따르는 표징들에 대해 설명하신다(16-18절). 복음 선포, 믿음, 세례, 구원 등의 표현들은 복음서 처음부터 세례자 요한과 예수께서 줄곧 사용해왔던 용어들이다. 제자들은 이제 하느님께서 세상 창조 때 혼돈^{Chaos}에서 질서^{Cosmos} 잡으신 “온 세상에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ἅπαντα* 가서,” 인간을 비롯하여 ‘보시니 좋게’ 창조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창세 1,1-2,4ㄱ 참조).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단죄를 받는 위협이 주어진다(16절). 믿는 이들에게는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말하며, 뱀독에 해를 입지 않고, 병자에 안수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17-18절). 이러한 것들은 인간을 억압하고 한계 짓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얻게 되는 진정한 자유에 대한 표징들이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말씀 이후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신다(19절). 우리말 성경의 ‘승천하시어’라는 표현의 그리스어 원문은 아나람

바노ἀναλαμβάνω라는 단어의 수동태가 쓰임으로써, ‘하늘로 들어 올려지시어’라는 의미로 직역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분의 인성이 하느님의 영광 안으로 결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분의 강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에게서 내려오신” 분이신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 가실” 수 있다고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설명한다(659, 661, 665항 참조). 또한 성부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신 것 역시 천주성의 영광과 영예 안에서 그 육신을 지니고 하늘에서 당신의 사제직을 영원히 수행하고 계심을 의미한다(662, 663항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하느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전례의 중심이며 주재자 이시다(662항; 묵시 4,6-11 참조).

제1독서 [사도 1,1-11]

¹테오�필로스 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²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³그분께서는 수난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 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⁴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⁵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⁶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⁷그러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⁸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⁹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¹⁰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환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¹¹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서,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구약성경에 역사서가 있다면, 신약성경에는 사도행전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약의 역사서가 ‘토라’인 오경과 시서/지혜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신약의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간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모든 복음서가 저자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첫 번째와 두 번째 책, 즉 2부작으로 루카가 썼다는 사실은 여러 초기 문헌들과 더불어 두 책의 여러 가지 공통된 신학적 흐름과 연결 고리들로 인해 교회 전통 안에서 꽤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다. 특히 사도행전은, 루카 특유의 삼단계 ‘구세사관’에 의해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와 공생활 이후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야기를 전한 시대를 거쳐 성령강림 때부터 종말까지의 교회 시대 이야기를 전개한, 마지막 단계에 관해 기록한 책이다. 따라서 사도행전 1장의 도입부는 루카 복음 24장과 연결되고, 루

카는 복음서에 기록했던 예수 구원 사업의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도행전에서 예수와 베드로, 바오로를 병행시킨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 그 행적들을 그대로 모방하여 끊임없이 반복한다. 사도들은 갈릴래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렀던 ‘주님의 길’을 ‘세상의 끝’인 로마까지 ‘교회의 길’로 연장한다.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선포는 이제 세상의 중심인 로마로 뻗어 나간다.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사도 1,1-11의 머리말은 루카 복음 전체를 요약하면서^(1-2절), 특히 24장 전반과^(3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함으로써,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부분이다. 이제 역사는 예수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넘어온다. 복음 선포의 임무와 사명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명령하시며 부여하신다^(4절). 하지만 곧바로 파견하시지는 않는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무방비 상태로 혼자 보내지 않으신다. 사도들은 우선 기다려야 하고, 며칠 뒤에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실 것이다^(5절). 성령은 아버지 하느님의 영이자 그분의 사랑이고, 예수의 사랑이다. 성령 안에서 영과 생명과 사랑이 만나고, 그 성령과 말씀으로^(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2,14-36) 교회가 탄생한다.

예수께서는 승천하심으로 인해 이제 더이상 제자들 눈에 보이지 않고^(9절), 그분은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 영원히 살아 계신 구세주 메시아의 권능을 드러내신다^(사도 2,34-36). 비록 그 육신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지만, 성령을 통하여 여전히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은 당신께서 직접 임무를 주고 파견한 이들과 함께하실 것이다. 제자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 것은 엘리사가 ‘영의 두 뿔’을 받기 위해 엘

리아가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된 것에서 모티프를 따왔다(2열왕 2,9-12 참조). 오순절이 되어 성령께서 오시면(23) 그분의 힘(뒤나미ς δυνάμις)과 권능이 교회의 삶 안에 계속 함께하시고,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 마르투스 μάρτυς가 될 것이다(8절).

제2독서 [에페 1,17-23]

형제 여러분, ¹⁷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¹⁸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¹⁹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²⁰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²¹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²²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에 머리로 주셨습니다. ²³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필리피서, 콜로새서, 필레몬서와 더불어, 소위 바오로의 ‘옥중서간’으로 불리는 에페소서는 문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상당 부분 콜로새서와 유사한 측면들을 보이기 때문에, 항상 바오로의 친저성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우선 이 편지의 서두 인사말에 바오로의 이름이 나오고(에페 1,1: 3,1), 바오로가 전개하는 신학적 주제들 또한 다양하게 전개되며, 언어와 문체도 친저성을 부인할 정도로 심각하게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에페소서는 바오로 계열 서간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 편지는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신학적인 고찰을 하는 첫째 교의 부분(에페 1,3-3,21)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교회와 세상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는 둘째 교훈 부분(에페 4,1-6,20),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비교적 간단하고 명확하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오늘 제2독서에 나오는 에페 1,17-23는 서두 인사말(에페 1,1-2)과 ‘찬가(eulogy)’(에페 1,3-14) 이후 나오는 감사기도에 속하는 부분이다. 저자는 수신자들이 받을 희망과 상속의 영광(18절), 그들이 알게 될 하느님의 힘(19절)에 관해 이야기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펼치신 능력의 핵심은,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으신 것”이다(20절). 앞서 살펴본 마르코 복음과 제1독서 사도행전의 ‘(승천의) 체험’을 시간 순서대로 생각해 볼 때, 에페소서는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잘 정돈된 신학을 보여 준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은 오직 하느님 아버지의 크고 강한 힘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하느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모든 피조물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

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로마 8,38; 1코린 15,24; 콜로 1,16; 2,15 참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만물, 특히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당신의 신적 권능을 충만히 *πλήρωμα* 실현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권능과 사랑으로 풍성히, 가득 채워져 온전해진다. “죄와 죽음을 이긴 승리자”로서,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 세상의 심판자,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주 예수께서는 “우리 교회의 머리요 으뜸으로 앞서가셔서 당신 지체인 우리도 희망을 안고 뒤따르게” 하신다(주님승천 감사송 1 참조).

오늘, 우리를 향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완성해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는 이제 하늘로 오르신다. 오늘 제1독서 사도행전은 9절에서 이것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라고 표현했고, 제2독서 에페소서 말씀에서 바오로 사도는 20절과 21절에서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 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라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

이러한 오늘의 독서 말씀들로 미루어 볼 때 ... 그렇다면 승천이란 무엇일까? 이별일까, 사라짐일까? 헤어짐일까, 떠남일까? 예수께서 이제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셨으니, 이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찌면 이러한 물음과 고민은 제1독서 사도행전에서 예수께서 시야에서 사라져 올라가시는 동안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던 사도들의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

을 것이다. 이 물음과 고민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복음 예수의 말씀에 주목해 보아야 한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에 사도들처럼 의심하여 주저하고 머뭇거릴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며 하늘 나라를 보여 주셨고, 이제는 먼저 그곳으로 가셨다.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전해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몇십 년 한평생 살고 끝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땅에서 그분께서 맡기신 복음 선포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 뒤, 우리도 그분처럼 영원한 그곳,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그것은 결코 이별도, 사라짐도, 헤어짐도, 떠남도 아니다. ‘HIC ET NUNC’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두 ‘지금 여기에서 함께함’이다.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는 완전함의 숫자 7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부활 제7주간이다. 그리고 그 완전함을 완성하는 일곱 번째 끝날인 성령강림대축일에, 오늘 승천하신 예수께서는 성령의 일곱 은사라는 선물을 잔뜩 내려 주실 것이다. 그 은사를 통해 우리는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인구〉

성령강림대축일

제1독서 [사도 2,1-11]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¹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²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³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⁴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⁵그때에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⁶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 말로 듣고 어리둥절해하였다. ⁷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래아 사람들이 아닌가? ⁸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⁹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카파도키아와 폰토스와 아시아 주민, ¹⁰프리기아와 팜필리아와 이집트 주민, 키레네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¹¹유대인과 유다교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업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사도 1,8)라고 이르셨고, 이 말씀은 바오로가 로마에서 “담대히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치”(사도 28,31)면서 실현될 것이다. 위대한 주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의 시작이 바로 성령강림(사도 2,1-13) 사건이다.

[1절] “오순절”은 유월절 다음 50일째 되는 날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보릿단을 수확하여 주님께 바치는 감사제이며(레위 23,15-22 참조), 동시에 이집트를 떠나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기념하고 그 계약을 갱신하는 축제이다. 이날은 순례 축제로서 열세 살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면 누구나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할 의무가 있었다. 하느님께서 율법을 수여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에,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불허 모양의 성령을 받게 되었다. 율법이 성령으로 쇄신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절] 요란한 소리는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 출현의 소음을 기억하게 한다(탈출 19,16-19). “거센 바람”은 엘리야를 하늘로 부르신 하느님의 현현(2열왕 2,11)과 관계된다.

[3절] 구약성서 안에서 “불”의 표상은 하느님의 출현 때 사용된다(창세 15,17; 탈출 3,2; 13,21-22; 1열왕 19,12; 2열왕 2,11 참조). 루카는 이미 세례자 요한의 입을 빌려 주님께서 “성령과 불”(루카 3,16)로 세례를 베풀 것을 밝혔다.

[4절] “다른 언어”는 오늘날 성령기도 또는 심령기도라고 부르는 기도이다. 무아경에 빠져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말하는 기도를

말한다. 하지만 루카는 이것을 황홀경의 차원보다 ‘공동체적’인 면을 강조한다. 성령을 입은 제자들은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신령한 언어”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온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언어”를 말했다. 성령강림의 핵심은 신비 현상이 아니라 복음 선포이다.

[5절]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은 축제를 위하여 일 시적으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을 가리키기보다는, 이 도시에 정착하기 위해서 온 이들을 지칭한다. 이들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고장에서 살았기에, 이방인들을 대표하기도 한다. 따라서 루카는 이를 통해 복음이 유대인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선포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6-8절] 그들을 “어리둥절해”하고, “놀라워”하고 “신기해”하였다. 루카는 사건이 극적임을 드러내기 위해 느낌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사용했다.

[9-11절] 인종 목록을 나열하고 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지역의 인종들로서 당대의 역사가자들이 작성한 목록과 비슷하다. 루카는 당대 통용되었던 인종 목록 안에, “유다”(9절), “유대인과 유다교로 개종한 이들”(11절)을 포함시키면서 이스라엘이 세계 중심인 듯한 인상을 준다. 이것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에 퍼져나간다는 루카의 보편적 구원관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묵상 길잡이

주님께서 당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방식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들이 성령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절대로 인간이 앞서게 하지 않

으신다. 당신이 먼저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 수난을 겪으시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 삶의 모범이 되시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 여정을 잘 나아가게 하려고 협조자 성령을 보내 주시었다. 제자들이 자신의 사명에 성실하기 위한 근본적인 힘은 성령에 있다. 주님의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고, 나의 힘을 빼고 성령께 주도권을 드리는 겸손이 필요할 것이다.

다른 하나의 묵상거리리는 성령께서 일치와 조화의 힘이라는 것이다. 성령을 입은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 말을 온 세계에서 온 모든 사람이 듣고 이해한다는 것은 “성령의 일치하는 힘”에 대해 묵상하도록 초대한다. 창세기 바벨탑 사건(창세 11,1-9)으로 일어난 분열과 연관시켜야 하는 사건이다.

제2독서 [1코린 12,3ㄷ-7.12-13]

형제 여러분, ³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⁴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⁵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⁶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⁷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¹²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¹³우리는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코린토인들은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최고의 은사로 여겼고, 교회 집회 중에서 앞다투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신령한 말을 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이는 그리스 지역의 밀교 의식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서 바오로는 성령에 대해서 설명한다.

[3㉮절] 예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신 분은 성령이시다(마태 16,17; 요한 14,26 참조).

[4절] 바오로는 영적인 현상을 묘사하기 위해 “은사들”이라는 용어를 선택한다. 은사^{charisma}는 1코린 1,7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것 같다. 바오로는 하느님의 실제적인 은사들^{charismata}을 순전히 황홀한 현상^{pneumatika}와 구분한다. 고린토인들은 황홀한 특성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바오로는 진정한 영적 실체는 은사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성령, 곧 활동하는 하느님의 힘이 이 은사들의 원천이다.

[5절] “직분”은 “주님”과 관련이 있다. 직분의 근원적 모델은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특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그분의 직분이 다른 이들의 종이 되는 것임을 보여주셨다(요한 13,14 참조).

[6절] 바오로는 다양한 은사들은 “활동”의 영역에서 표현된다고 여긴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은사를 주신 이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여,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실제로 일하신다.

첫 번째 “모든 사람”에서의 “모든”은 은사적 활동의 전체성에 대해서 말한다. 두 번째 “모든 활동”에서의 “모든”은 은사들 자체에 대해서 말한다. 바오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은사적이라는 것을 단언한다. 하

느님의 은사는 은사를 받은 이에게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책임을 요구한다(로마 12,6b-8).

[7절] “각 사람에게 …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은사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영적인 실재에 대한 독점적 특권을 주장하는 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은사는 거저 주어진 선물이다. 그 목적은 분명하다. “공동선”, 공동체의 유익이다. 은사는 공동체의 성장에 봉사해야 하며, 그 누구도 그 은사로 자신의 권위를 높일 수 없다.

[12절] 바오로는 “몸”과 여러 “지체”들의 비유로 성령의 각기 다른 은사를 지닌 사람이 모인 공동체에 관해 설명한다.

[13절] “유대인이든, 그리스인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같은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일치를 이룬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세례적 일치는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차이를 초월한다.

“성령을 받아 마셨다”는 성체성사 안에서 잔을 받아 마신 것을 의미한다. 지금 바오로는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를 “한 성령”과 연결하고 있다.

묵상 길잡이

바오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존재하는 세 가지 선물인 은사와 직분과 활동(4-6절)에 관하여 언급한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관이 깊으면서 각각 구분된다. 은사는 성령의 활동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은사를 ‘하느님께서 거저 주신 은총(Gratia gratis data)’으로 이름 붙였다.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며 그분 뜻에 따라 나누어 받는다. 주님이 주시는 것

이지 교회 지도자가 부여하는 것도 아니며, 교회 운동이나 수도회의 창립자가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

바오로에 따르면 직분은 “주님”과 관련된다. 은사에서 직분으로 옮겨가는 것은 공동체적·교회적 차원과 연결된다. 철저히 무상으로, 성령의 온전한 자유로 주어진 은사가 직분으로 전환될 때, ‘섬김’이라는 교회적 지평이 더해진다. 모든 은사가 직분으로 전환되지는 않아도, 은사에서 비롯되지 않은 직분은 없다. 그렇게 교회 안에 은사와 제도는 아주 밀접하다. 은사가 없으면 제도는 제도주의로 변질될 것이다. 제도로 무르익지 않은 은사는 자의적 해석이나, 봉사로 연결되지 못한 주관주의에 빠지기 쉽다. 많은 이들이 은사와 제도를 대립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이 둘은 긴밀한 상호의존관계를 갖는다.

활동은 이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느님”에게서 비롯된다. “활동”이라는 말 안에 이미 ‘초자연적인 힘, 우주적 힘’의 의미가 담겨 있다. 모든 은사는 하느님의 창조 활동으로 실현된다. 모든 은사가 직분 또는 활동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활동은 직분과 은사의 표현이다.

은사와 직분과 활동을 설명하는 1코린 12,4-6의 본문에서 삼위일체의 표상도 볼 수 있다. 은사를 “성령”과, 직분을 “주님”과, 활동을 “하느님”과 연결하며, 성령에서 주님과 하느님으로 옮겨가는 여정을 표현한다. 은사가 직분이 되고, 직분 안에서 활동이 일어난다. 성령은 성자의 직무 안에서 드러나고, 직무는 성부의 새로운 창조 활동이 된다. 바오로는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몰랐지만, 여기에서 단일성과 다양성의 관계 안에서 삼위일체 신비를 아름답고 명료하게 설명했다. 은사, 직분, 활동의 다양성은 성부, 성자, 성령의 단일성으로 소급된다. 그분이

주시는 은사와 직분과 활동에 헌신하는 것이 삼위일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안토니오 피타, <그리스도를 입다>, 126-139쪽 참조).

복 음 [요한 20,19-23]

¹⁹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²⁰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²¹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²²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²³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 본문은 예수의 발현사화 중 하나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신비롭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주신다.

[19절]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은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 주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전하라고 명하신 말씀을 들은(요한 20,11-18) 그날 저녁이다.

제자들은 마리아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유대인들이 두려워” 방에 갇혀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는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지

못했다. 부활을 알지만 그들을 미워하고 모욕하고 죽이려는 유다인들에 대한 두려움은 남아있다.

그때 예수께서 “평화”를 선포하시며 이 상황 안에 들어오신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에 들어와 제자들 가운데 서신 것은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 승리의 표지가 된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의 새로운 실존방식과 현존이다. 그분은 닫힌 세상을 열린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닫힌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다가가실 것이다. ‘평화’는 유다인들의 일상적인 인사말이었지만, 이제는 공포와 불안을 이기게 하는 ‘부활’과 특별한 관련을 맺게 된다.

[20절] 그러나 제자들의 의심은 아직도 가능하다.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와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께서 같은 분이라는 증거가 필요하다. 그들에게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신다.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리셨고(요한 19,18),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요한 19,34) 바로 그 예수이시다.

제자들은 바로 ‘기쁨’으로 화답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확실한 증명은 혼란과 고통 가운데에 있던 제자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었다.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의 발현은 단순히 약속의 성취를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오직 평화와 기쁨만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온 세상에 예수의 승리와 그 결실의 전 달자가 되어야 한다.

[22절] “숨을 불어넣는” 행위는 구약성서에서 생명을 주는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었다(창세 2,7; 1열왕 17,21; 예제 37,9; 지혜 15,11 참조).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께로부터 생명을 얻었다.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상 안에 있었던 그 모습으로 세상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와 같은 완전함과 거룩함에 쉽게 이르지 못한다. 이 거룩함은 오직 보호자이며 협조자이신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23절] 그들의 직무를 통하여 죄가 용서되고 보류된다. 제자들의 죄를 용서하는 사명은 이후 세대에 예수의 현존을 지속시킬 것이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기쁨과 평화를, 겹을 먹고 두려워하는 다음 세대의 제자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 성령의 힘을 받은 제자들은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하는 다음 세대 제자들에게 예수의 대리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묵상 길잡이

이 본문에서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 주목할 수 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이들에게 성령은 기쁨과 평화를 주었다. 두려움과 죄책감에 의해 문을 닫아걸고, 다른 이들과 담을 쌓고 지내는 제자들에게 성령은 그 벽을 뚫고 들어가 그들을 밖으로 초대한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직무가 제자들의 직무 안에서 계속되게 한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제자들은 주님 메시지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 부활에 대한 기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려움에 기인하는 두려움이라는 양극적 감정을 지닌 대부분 그리스도인에게 성령과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용서하는 사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제자들이 받은 선물이자 사명이다. 우리는 형식적인 사죄 권한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다른 이를 용서하는 능력을 받았다. 그 능력은 우리의 사명이다.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만, 또 용서했을 때(혹은 주님 은총으로 용서가 되었을 때) 큰 기쁨과 평화를 경험한다. 용서는 어려운 사명이지만 동시에 기쁨과 평화를 보장하는 선물이다.☯

〈최정훈〉



후원회원 가입 방법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의 후원회원이 되실 개인이나 단체는 아래 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FAX, 또는 우편, 이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소: (우)03086 서울 종로구 대학로12길 53(동숭동)

문의 전화: (02)3672-0253~4, 팩스: (02)3672-0255,

E-mail: gaudium95@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gaspi.org>

▶ 납입 방법 안내

CMS 자동이체: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원이 금융결제원에 신청하여 이체합니다.

직접 자동이체: 본인이 은행에 직접 신청하여 일정 기간 매월 정해진 날에 아래 입금계좌로 일정 금액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타행 이체 시 이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시 후원: 후원 기간과 상관없이 원하는 때에 1회 이상 비정기적으로 아래 입금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 입금 계좌

국민은행 031-01-0410-296(예금주: 기쁨과희망)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후원회 가입 신청서

후원자명 (단체명)		세 레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축 일	
주 소			
이 메 일			
휴 대 폰		전 화	
후원회비	매월 ()일 ☐ 5천원 ☐ 1만원 ☐ 2만원 ☐ 3만원 ☐ 5만원 ☐ 10만원 ☐ 기타()만원		
납입방법	☐ CMS 자동이체 ☐ 직접 자동이체 ☐ 일시 후원		
CMS자동이체 신청시 작성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본인(단체)은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후원회원 가입을 원합니다.

20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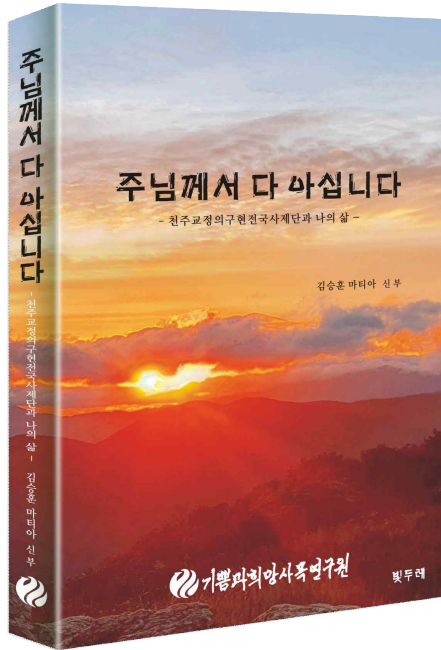
가입자

(인) 또는 서명

선종 20주기, 민중의 벗 김승훈 신부님의 자서전 발간(개정판)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나의 삶



김승훈 신부님께서 1999년 펴내신 자서전 <당신께서 다 아십니다>를 수정, 보완해서 개정판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나의 삶>(152x225mm, 304쪽, 빛두레, 정가 17,000원)을 발간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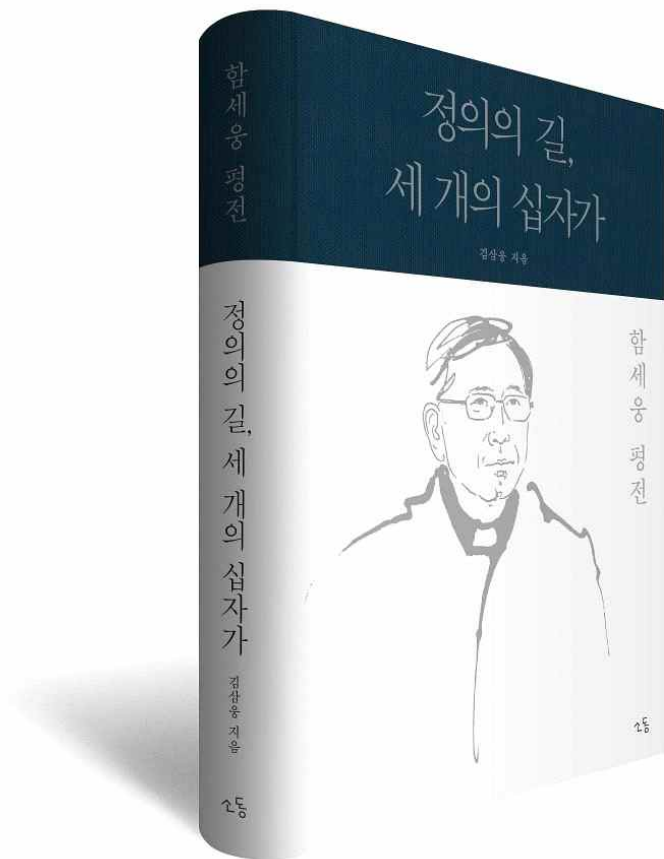
신부님에게 정의구현사제단은 마치 분신과도 같았고,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폭로도 세상의 정의에 관계하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한 사제로서,
민주화와 인권, 통일 등 시대의 상황에 대한 절절한 고민과 성찰이 담겨 있고,
또한 가톨릭교회의 목자로서 교우들과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솔직한 자기고백을 적어두셨습니다.
김승훈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빌며, 신부님께 저희를 위한 기도를 청해봅니다.

◆ 구입문의: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 (02) 3672-0253~4 || 이메일: gaudium95@hanmail.net



함세웅 평전: 정의의 길, 세 개의 십자가

저자: 김삼웅, 출판사: 소동 / 규격: 152x220mm / 면수: 336쪽

출간일: 2024년 01월 09일 / 정가: 25,000원

한평생 걸어온 민주주의의 한 길.

민중과 함께하는 영원한 헌역, 함세웅.

누가 정의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그의 삶을 보게 하라!

이 책은 사제이자 사회운동가로 평생을 살아온 함세웅 신부의 삶의 기록이다. 삼엄한 독재의 70년대, 찬란한 항쟁의 80년대, 좌절과 반성의 90년대 그리고 새로운 모색의 2000년대까지, 그의 이름에 응축되어 있는 이 땅의 현대사가 수많은 자료와 인터뷰를 통해 생생하게 재현된다. 굴곡진 시대였던 만큼 사연 또한 많았을 터, 그것을 담아낸 책의 밀도 역시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

한 눈으로 읽는 말씀과 세상, 주일미사 독서와 복음의 길잡이 <선포와봉사>



◆<선포와봉사>는 매 주일미사 독서와 복음 해설을 통해 하느님 말씀에 한 걸음 더 깊이 다가서고, 신부님 강론 준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선포와봉사> 제작비 인상에 따라 구독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날권 가격은 15,000원이고, 1년 구독료(총 6권)는 7만 원입니다. 이미 정기구독을 신청하신 분들은 기존의 구독료 그대로 유지합니다. 신규 독자나 재구독을 하실 경우,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부득이한 가격 인상을 이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고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02-3672-0253)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기업은행: 277-017405-04-028 예금주: 기쁨과희망

선포와 봉사

발행일 | 2024년 3월 24일

펴낸곳 |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발행인 | 이영우

발행처 | 도서출판 빛두레

등록일 | 1993년 8월 31일 등록번호 | 제2-1603호

주 소 | (우)03086 서울 종로구 대학로12길 53(동숭동)

전 화 | (02)3672-0254

팩 스 | (02)3672-0255

이메일 | gaudium95@hanmail.net

표지디자인 | 조진선

편집·인쇄 | 삼토피아솔루션 ☎(02)742-9600

ISSN | 2383-9732

값 15,000원

©도서출판 빛두레, 2024 Printed in Korea